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8 vol.320

08

유럽 박물관 기행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Museo Nacional del Prado)

오페라 연출가 이외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이외주, 바그너에 도전하다!

커버스토리

2018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The Carnival of Music

PROGRAM

생상스 - 금난새 | 카니발 오브 뮤직
Saint-Saëns - Gum | The Carnival of Music

피아노 김송현, 이민선
플루트 이지혜
첼로 이일세
클라리넷 안유빈
색소폰 황동연
타악기 신주하

지휘·해설 금난새



2018. 8. 17금

오전 11:00,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티켓 균일 10,000원 예매 www.bscc.or.kr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5,000원권) ▶ 전화문의

세밀서비스 운영(무료) • 출발지: 대연역 2번 출구 유영교사로 방향 100m "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11시 공연 30분전 ▶ 1회 운임 18시 공연 1시간전, 30분전 ▶ 2회 운임

2017-2019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사이클 VI
The Richard Strauss Cycle VI - Complete Tone Poem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3회 정기연주회
마지막 순간


2018. **9.7**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최수열

소프라노 이명주

Program

- 슈베르트 | 밤과 꿈
F.Schubert | Nacht und Träume, D.827
- 슈트라우스 | 네 개의 마지막 노래
R.Strauss | Vier Letzte Lieder, o.Op.150
- 슈트라우스 | 「죽음과 정화」
R.Strauss | "Tod und Verklärung", Op.24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서비스 운영(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2회 운영)

창작 뮤지컬
해운대연가

구룡포의 위기를 본노자

같은 하늘 같은 공간에서 인간은 어찌 이리도
다른 삶을 살게끔 정해진 것인가

2018. 8. 29. 수 ~ 9. 1. 토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평일 저녁 8시 | 주말 오후 5시

제작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주최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아트레볼루션 주관 아트레볼루션 후원 부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문화재단
티켓 VIP석 4만원 / R석 3만원 / A석 2만원 예매처 인터파크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출연진 한규정, 노희찬, 전해주, 김인형, 박준성, 이태오, 채민수, 강수민, 고정보, 김범수, 김수현, 김수희, 김미미, 김정환, 김현기, 박문현, 박준수, 박재현, 신새봄, 이대희, 이상민, 이태경, 장준혁, 정철민, 최예나, 최호운
총제작 김성모 연출/극작/작곡 박정우 협력작곡 이진실 편곡 이민정 음악감독 천정훈 안무감독 정호준 음향감독 전성환 조명감독 이재철 무대감독 황지선 총괄PD 구자민 해운대뮤지컬레볼루션 해운대뮤지컬오케스트라

* 본 공연은 2018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개최됩니다.



백혜선의 베토벤

‘비창’과 ‘열정’

Sonata No.4 in E flat Major, Op.7
Sonata No.8 in c minor, Op.13 "Pathetic"
Sonata No.6 in F Major, Op.10-2
Sonata No.23 in f minor, Op.57 "Appassionata"

2018. 9. 11(화)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주최 |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부산아트매니지먼트

협찬 |



에매처 |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www.interpark.com

1544-1555

입장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공연문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영화의전당 051.780.6000

할인 | 영화의전당 유료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학생(초,중,고,대학생) 20%, 예술인패스(본인만) 20%

남북교류 평화콘서트

하나되는 아리랑



CAST

김덕수 사물놀이패

평양민속예술단 (단장: 주명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 이건륜)

피아노 김철웅 소리 박성희/김세운

소프라노 남순천 앨토 이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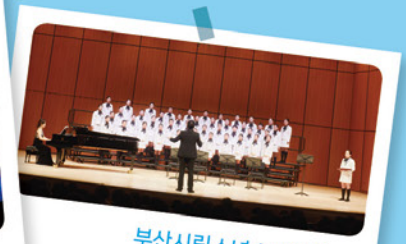
테너 최원갑 베이스 김창돈 노래 김은아



평양민속예술단 | (단장:주명신)



김덕수 사물놀이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PROGRAM

• 피아노 협주곡 [아리랑 소나타]

작곡·피아노: 김철웅 / 편곡: 박위철

• 통일 아리랑, 통일돈돌라리 편곡: 박위철 / 협연: 평양민속예술단

• 남누리 북누리, 고향의 봄 합창: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어머니 작곡: 위중수 / 편곡: 박위철 / 노래: 김은아

• 아리랑 낭랑 편곡: 박위철 / 협연: 평양민속예술단

• 중창과 소리 [혼의 소리 아리랑]

작곡: 이준호 / 소리: 박성희, 김세운 / 소프라노: 남순천,

앨토: 이유진, 테너: 최원갑, 베이스: 김창돈

• 사물놀이 협주곡 [본] 작곡: 정승희

/ 장구: 김덕수, 팽과리: 문상준, 북·부쇠: 송동운,

징·소리: 홍윤기



김철웅



김은아

Contents

08



18



22



월간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8년 8월호 통권 320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박인건

편집인 조요한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8년 7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08 COVER STORY

부산 최초 클래식 전용홀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1주년 기념무대
2018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12 SCHEDULE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8월 공연캘린더

16 BACKSTAGE OPERA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이의주, 바그너에 도전하다!
부천필 박영민 지휘자와의 오페라 프로젝트

18 MUSEUM OF EUROPE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Museo Nacional del Prado)

22 TRAVEL WITH YOU

천년고찰 직지사를 품고 있는
김천 여름여행

29 PREVIEW

34 ISSUE

반갑다 여름아!!!
8월, 풍성한 문화축제가 펼쳐지는 부산
2018 제9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유시인(音遊詩人)의 숨결

40 REVIEW

42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55 BOOK

새로 나온 책

56 SNS SUPPORTERS

SNS 서포터즈 관람기

57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61 INTERVIEW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만나다

커버스토리

부산 최초 클래식 전용홀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1주년 기념무대

2018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8월 15일(수)-30일(목)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올라 비올라

CHAMBER FESTIVAL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2018 BSCC



서울비르투오지



아베그 스트링 콰르텟

- ◇ 8월 15일(수) 오후 5:00 아베끄 스트링 콰르텟
- ◇ 8월 16일(목) 오후 7:30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 ◇ 8월 17일(금) 오후 7:30 올라 비올라
- ◇ 8월 18일(토) 오후 5:00 서울비르투오지
- ◇ 8월 23일(목) 오후 7:30 센트챔버소사이어티
- ◇ 8월 24일(금) 오후 7:30 코리아비르투오지
- ◇ 8월 25일(토) 오후 5:00 예일앙상블플레이어스
- ◇ 8월 26일(일) 오후 5:00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 ◇ 8월 27일(월) 오후 7:30 부산신포니에타
- ◇ 8월 28일(화) 오후 7:30 프로이데 스트링 콰르텟
- ◇ 8월 30일(목) 오후 7:30 무지카비바 앙상블 '랩소디, 여름이야기'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1주년을 맞아 '2018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이 8월 15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기존의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을 클래식 전용홀로 리노베이션한 챔버홀은 총 414석 규모의 실내악 전문홀로, 국내 정상급 어쿠스틱 음향을 자랑한다. 특히 무대를 감싸고 있는 음향반사판이 아늑한 공연장 분위기를 조성, 클래식 공연에 최적화된 무대와 연주자의 호흡까지 느낄 수 있는 오디토리움(관객석)을 제공하면서 그동안 연주자들은 물론 관객들에게 최적의 공간으로 사랑받아 왔다.

지난해 8월, 챔버홀 개관을 기념해 열렸던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을 통해 정통 실내악의 진수를 선사했던 (재)부산문화회관은 올해 보다 더 화려한 라인업과 풍성한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만난다. 실내악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아베끄 스트링 콰르텟의 무대를 시작으로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올라 비올라, 서울비르투오지, 센트챔버소사이어티, 코리아비르투오지, 예일앙상블플레이어스,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부산신포니에타, 프로이데 스트링 콰르텟, 무지카비바 앙상블 등 11개 단체가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실내악의 대향연을 펼친다.

8월 15일 그 화려한 축제의 막을 여는 아베끄 스트링 콰르텟(Avec String Quartet)은 바이올리니스트 이석중, 반선경, 비올리스트 진덕, 첼리스트 윤여훈으로 결성된 젊은 현악 4중주단으로, 2015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바로크에서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주고 있다. 아베끄 스트링 콰르텟은 불어로 '함께'라는 뜻으로, 청중들에게 먼저 다가갈 좋은 음악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붙인 이름이다.

8월 16일에는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의 현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Busan Chamber Orchestra)가 무대에 선다. 지난 1993년 창단된 후 그동안 20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협주곡의 밤, 찾아가는 음악회, 부산KBS FM Concert, 부산MBC 목요일음악회 등 100여회가 넘는 다양한 무대에 서온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는 잘 조율된 현악합주의 선명하면서도 깊은 음색을 이용한 연주로 사랑받고 있다.

비올라만의 구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올라 비올라(Ola Viola)는 8월 17일 관객들과 만난다. 스페인어로 '안녕'이라는 뜻을 지닌 올라 비올라는 비올라의 다양한 음색과 레퍼토리를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비올라를 통해 클래식 음악을 다정한 친구처럼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올라 비올라만의 고유의 사운드로 승화시켜 비올라 앙상블의 숨겨진 매력을 선사한다.

관람료 할인 안내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유료) 40%
- 패키지티켓 5회 이상 동시예매 50%,
3~4회 동시예매 40%, 2회 동시예매 30%
- 챔버 페스티벌 마니아 40%
(※ 2017 챔버 페스티벌 유료관람자 1인 2매)
- 공연 마니아 30% (※ 2017년~2018년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유료관람자 1인 2매)
- 초·중·고·대학생 본인 50%
-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문화누리카드 결제시 본인 50%
- 장애인 1~3급(동반 1인까지), 4~6급(본인) 50%
- 국가유공자 본인 50%
- 의사자/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50%

※공연당일 증빙서류 미지참시 차액지불

커버스토리



양상블 코스모폴리탄



코리아비르투오지



부산신포니에타



센토챔버소사이어티

8월 18일에는 완벽에 가까운 예술성 높은 연주로 실내악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서울비르투오지(Seoul Virtuosi)가 무대에 선다. 이상적인 실내악 음향을 실현하고자 음악감독인 서울대학교 이경선 교수를 중심으로 뛰어난 실력의 연주자들로 결성된 서울비르투오지는 국내는 물론 2016년 중국 상하이 음악원과 상하이 한국문화원에 초청받아 첫 해외공연을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한국 클래식 국제적 위상을 높인 바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 이은옥을 주축으로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

된 센토챔버소사이어티(Sento Chamber Society)는 8월 23일 관객들을 찾아간다. '느끼다, 듣다'라는 이탈리아어 동사 'Sentire'에서 가져온 센토챔버소사이어티는 연주자들의 '느낌'이 청중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붙인 이름으로, 지난 2011년 창단 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쇤베르크의 현악 6중주 '정화된 밤'을 연주하는 등 부산의 실내악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8월 24일 무대에 서는 코리아비르투오지(Korea Virtuosi)는 코리아신포니에타의 새로운 이름으로, 2018년 새롭게 출발했

다. 바이올리니스트 박동석, 안세훈, 비올리스트 이화진, 황은비, 첼리스트 홍진호, 피아니스트 최현호 등 최고의 실력을 갖춘 연주자들로 구성된 코리아비르투오지는 다양한 편성의 앙상블을 구성함으로써 청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모더니즘적인 공연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25일에는 미국의 명문 예일대학교 음악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된 예일앙상블플레이어스(Yale Ensemble Players)가 관객과 만난다. 세계 정상급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문경, Yi-Ting Chen, 비올리스



프로이데 스트링 콰르텟



무자카비바 앙상블



예일앙상블플레이어스

트 차민정, 첼리스트 Ying-Chi Tang 등 한국과 대만 출신의 연주자들이 하이든과 슈베르트, 그리그의 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있는 이 일세를 중심으로 창단된 앙상블 코스모폴리탄(Ensemble Cosmopolitan)은 8월 26일 무대에 선다. 지난 2010년 창단된 후 바로크에서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구사하며 다양한 시리즈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은 재미있는 해설을 통해 쉽고 친근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86년 창단된 후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신포니에타(Busan Sinfonietta)는 8월 27일 관객과 만난다. 부산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음악감독 김영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온 부산신포니에타는 그동안 90차례 정기연주회와 국내 우수 공연장의 초청연주, 그리고 대만, 일본, 러시아 그라스노마르스크에서 개최한 국제음악제에 초청받아 현지언론과 음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8월 28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해정, 양경아, 비올리스트 김성은, 첼리스트 이상

경으로 구성된 프로이데 스트링 콰르텟(Freude String Quartet)이 무대에 선다. 음악의 본질은 ‘기쁨(Freude)’이라는 명제로 청중과 더불어 음악의 기쁨과 환희를 공감하고자 이름 붙인 프로이데 스트링 콰르텟은 특히 악성(樂聖)이라 불리는 베토벤의 현악 4중주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연주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창단된 단체로, 고전시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현악 4중주곡의 조화로운 선율을 전달하며 청중과 교감해오고 있다.

8월 30일, 축제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주인공은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파워풀하면서도 따뜻하고 호소력 있는 연주로 주목받고 있는 무지카비바 앙상블로, ‘랩소디, 여름이야기’라는 부제로 리스트, 프레드리크 머큐리, 막심 트라비치의 광시곡을 비롯해 한 여름에 어울리는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지난 1998년 창단한 무지카비바 앙상블은 안정된 연주력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국내외 무대에서 호평받아왔다.

08

2018 AUGUST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첼**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사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전
시
실

2018 부산국제사진제 'What is photography for me?'

8월 11일(토)-9월 2일(일)

무료

부산국제사진제 조직위원회 www.bipf.kr

5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발레리노 김용걸과 함께하는
'Summer Ballet Festival' 17:00
대 7만원·5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6

7

12

13

14

제36회 KBS부산 무용콩쿠르(예선) 09:00
중 KBS부산(620-7327)

제36회 KBS부산 무용콩쿠르(예선) 09:00
중 KBS부산(620-7327)

남카라 바이올린 & 오소라 피아노 듀오 연주회
19:30
첼 전석 5만원
마에스트로컴퍼니(02-525-2761)

19

20

21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6

27

28

제36회 KBS부산 무용콩쿠르(본선) 09:00
대 KBS부산(620-7327)

◆ 2018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양상블 코스모폴리탄' 17:00
첼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2018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부산신포니에타' 19:30
첼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2018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프라이데 스트링 콰르텟' 19:30
첼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WED	THU	FRI	SAT
1	2	3	4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발레리노 김용걸과 함께하는 'Summer Ballet Festival' 17:00 대 7만원·5만원·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8	9	10	11
15	16 제1206회 MBC목요음악회 오페라컴퍼니 '그래, 우리함께' 19:30 중 1만원·5천원 (사)문화도시 네트워크(760-1494) 2018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아베고 스트링 콰르텟' 17: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7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Carnival of Music' 11:00, 16:00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가족을 위한 꼴쟁 음악회 19:30 중 전석 1만원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010-9371-8987) 2018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올라 비올라'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8 인제의대 관현악단 제37회 정기연주회 19:30 중 무료 인제의대 관현악단(010-4160-9318) 2018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서울비르투오지' 17: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2 2018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아베고 스트링 콰르텟' 17: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팔빙수처럼 시원한 음악회 '남북교류 평화콘서트-하나 되는 아리랑' 19:30 대 1만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 2018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센토챔버소사이어티'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4 제9회 웰니스 클래식 '베토벤 황제'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 부산문화(1600-1803)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8 안무가 양성프로젝트-몸으로 쓰는 시' 19:30 중 전석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2)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코리아비르투오지'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5 아트뱅크코리아 창립 20주년 기념연주회 III '피아노의 시인 존 오코너 초청공연' 17:00 중 5만원·3만원·1만원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018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예일양상블플레이어스' 17:0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9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4 '오페라이야기 I' 11:0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0 쿠바 음악의 디바 다이메 아로세나 첫 내한공연 19:30 중 7만5천원·6만5천원 (사)한쿠바교류협회(02-2038-2306) 2018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무지카비바 앙상블' 19:30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1 2018 제9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콘서트 20:00 대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516-8293~4)	

08

2018 AUGUST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아 야외광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전시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 작가 퀸틴 블레이크展 in 부산
 7월 7일(토)-9월 30일(일) 부산시민회관 갤러리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8:00, 입장마감 오후 7:00)
 균일 8천원 · 단체 4천원 · 초중고생 3천원 · 미취학아동 2천원 · 유아, 장애인 무료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천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32, www.bscc.or.kr

5

6

7

12

13

14

이삼열밴드 첫 부산공연
 엄마가 내게 가르쳐준 노래들 19:00
 슨 전석 3만원
 2310 엔터테인먼트(02-578-3188)

19

20

21

제3회 늘푸른 연극제 ‘늙은 자전거’ 16:00
 슨 전석 3만원/극단 전위무대(582-2026)

제3회 늘푸른 연극제 ‘늙은 자전거’ 20:00
 슨 전석 3만원/극단 전위무대(582-2026)

26

27

28

제37회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10:00
 슨 무료/(사)한국교육선진화재단(201-0222)

WED	THU	FRI	SAT
<u>1</u>	<u>2</u>	<u>3</u>	<u>4</u>
<u>8</u>	<u>9</u>	<u>10</u>	<u>11</u>
<u>15</u>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10:00 대 무료/부산광역시(888-1854)	<u>16</u>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작가 퀴틴 블레이크 展 연계프로그램 9:00, 13:30 대 초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u>17</u>	<u>18</u> 제3회 늘푸른 연극제 '높은 자전거' 16:00 소 전석 3만원/극단 전위무대(582-2026)
<u>22</u> 제3회 늘푸른 연극제 '높은 자전거' 20:00 소 전석 3만원/극단 전위무대(582-2026)	<u>23</u> 제3회 늘푸른 연극제 '높은 자전거' 20:00 소 전석 3만원/극단 전위무대(582-2026)	<u>24</u> 제3회 늘푸른 연극제 '높은 자전거' 20:00 소 전석 3만원/극단 전위무대(582-2026)	<u>25</u>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8년 제4회 부산국악 축제 18:00 대 초대 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644-5211) 제64회 경향음악콩쿠르 09:30 소 무료/경향신문사(462-7071)
<u>29</u> 제37회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09:30 소 무료/(사)한국교육선진화재단(201-0222)	<u>30</u> 제37회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09:30 소 무료/(사)한국교육선진화재단(201-0222)	<u>31</u>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이의주,
바그너에 도전하다!

**부천필 박영민
지휘자와의
오페라 프로젝트**

66

이의주 연출님의 그 말에
오기가 생겨 저는 이 작품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99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 어느 곳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있다. 항상 국내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를 꿈울 때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과 함께 손꼽히는, ‘말러 신드롬’으로 교향악단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올해 창단 30주년의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부천필)이다. 1988년대 기준 인구 50만 명(현재 85만명) 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의 작은 도시에서 부천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성원으로 서울대학교의 임현정 교수가 20여년을 이끌어 온 부천필은 몇 년 전 2대 상임지휘자로 박영민 지휘자가 부임했다. 1천만 인구의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전국구의 KBS교향악단에 비한다면 부산시 남구와 북구를 합친 면적(64km²)보다 작은 면적(53.44km²)에 채 1백만이 되지 않은 규모의 도시에서 이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성장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술을 사랑하고 후원하는 부천시민과 부천시, 그리고 오케스트라 멤버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국 도시 이미지와 도시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팔목할 만하다.

초대 지휘자의 업적에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한 박영민 지휘자는 새로운 레퍼토리를 구상했고, 특히 바그너 오페라에 매우 큰 애정을 가지고 있던 그는 바그너의 여러 작품들을 차례로 연주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2016년 6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부천필과 지휘자 박영민은 110명의 오케스트라와 부천시립합창단을 비롯한 고양시립합창단, 마에스타 합창단 등 130명의 합창단, 그리고 20명의 캐스트 등 총 250여명의 인원으로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콘체르탄테’를 상연했다. 이 연주는 국내에서 오케스트라 주최로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전곡을 콘체르탄테 형태로 연주하는 최초의 시도였고, 이 시도 이후 탄호이저 붐을 전국적으로 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러나 바그너 오페라에 대한 도전은 캐스팅에서부터 쉽지 않은 작업이다. 특히 바그너 전문가수가 공연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작품의 난이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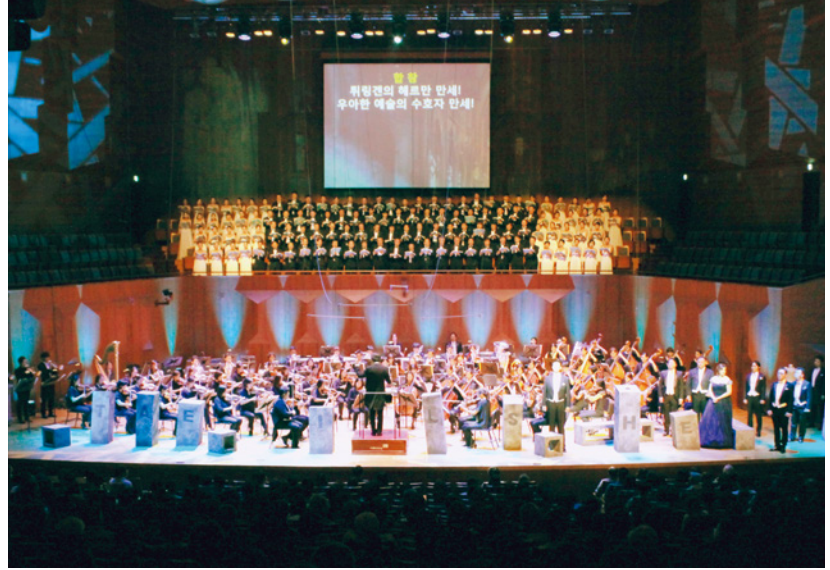
2015년 가을, 부천시립예술단과 나는 오페라 콘체르탄테 ‘탄호이저’를 준비하면서 출연진을 캐스팅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다. 주인공인 탄호이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당시 나와 부천시립예술단 사무국을 총괄하는 박갑선 팀장(미국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공연예술학으로 한국인 최초로 박사를 받았으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도 잠시 직을 두었던)은 전 세계의 한국인 및 외국 성악가들을 리서치하는데 반년을 보낸 상태였다. 그녀는 오케스트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바그너협회에서 오랫동안 간사로 활동하기도 해서 이용숙 평론가와 더불어 전문적인 바그너通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튼, 정식 오디션과 여러 면접을 거친 후에도 ‘캐스팅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많은 상황들을 뒤로하고 나는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발세시아-비오티 국제 콩쿠르’에 심사위원으로 가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기서 나는 탄호이저와 베누스(비너스)역 성악가를 찾을 수 있었다.



1차 예선이었다. 수많은 참가자 중 가운데 눈에 띈 성악가 3명이 있었다. 대만 출신의 리릭 소프라노와 네덜란드 메조 소프라노, 그리고 한국인 테너였다. 나는 그중에서 소프라노와 테너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특히 테너는 듣자마자 ‘딱 탄호이저네’라고 생각했다. 그는 독일에서 바리톤으로 공부하다가 본인의 소리가 테너라 생각되어 이탈리아로 건너간 후, 테너로 전향하자마자 1년 만에 이미 베르디 국제 콩쿠르(2위)와 마리아 카날리아 솔모나 국제 콩쿠르에서 우수한 경험이 있었던, 그야말로 ‘핫한’ 테너 이범주였다.

나는 1차가 끝나자마자 박팀장에게 연락을 하여 우리가 찾던 테너를 찾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박팀장은 끝까지 더 들어보며 두고 보라고 했다. 그 테너는 멋지게 2차를 통과하고 심사위원들의 기대 속에 3차 마지막 결선에 나갔는데…, 아!… 컨디션 난조로 아쉽게도 순위 안에 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콩쿠르에서는 내가 짝은 두 명의 여성 성악가가 공동 1위를 했다. 콩쿠르는 그날의 컨디션과 주위 상황에 따라 결선 진출자들의 순위가 그때 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 오늘은 1위를 해도 다음번에는 3위를 할 수도 있고, 오늘 3위를 해도 내일 1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꾸준하게 1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콩쿠르가 끝나고 나는 박팀장에게 연락을 해서 한국인 테너를 탄호이저 역에 캐스팅 해야겠다고 했다. 그리고 공동1위를 했던 네덜란드 메조 소프라노를 베누스역에 캐스팅 하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결국 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후 엘리자베타(탄호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오페라 탄호이저 콘서트탄테’

이저 상대 여주인공)역할에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소프라노까지 캐스팅되면서 가장 중요한 3명의 배역 캐스팅을 끝낼 수 있었다.

나는 그가 3차 결선에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신경이 쓰여, 한국에 돌아와 캐스팅 결정에 대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는 범주 씨가 아주 잘할 거라기 보다 그 젊음과 열정으로 해낼 것이라 생각되어 캐스팅 했어요”라고 말했다. 해가 바뀌고 탄호이저 공연인 6월이 다가왔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이의주 연출님께서 제게 단지 ‘해낼 수 있다’는 말에 오기가 생겨 어려운 배역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두 눈을 번뜩이며 기자들에게 자신의 집념을 드러냈다. 나는 사실 깜짝 놀랐다. 반신반의 하면서 당신을 캐스팅 했으니 잘 하라는 나의 다소 직설적인 표현에 그는 두 주먹 불끈진 것이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그런 그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내색하면 안 된다. 미리 보여주면 긴장이 풀릴 수도 있어서 표정 관리 하느라 힘들었다.

드디어 2016년 6월 30일, 장장 3시간 반 넘게 탄호이저로 공연을 막 끝낸 이범주 씨를 나는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포옹했

다. 그는 성공한 것이다. 생애 처음으로 테너로, 그것도 그 수준 높은 부천필과 오페라 전곡 마라톤 완주를 성공한 것이다! 나는 박팀장과 미소 지으며 우리의 선택에 대한 보람을 함께 나눴다. 테너 이범주는 이후 이탈리아와 한국의 많은 프로덕션에서 러브콜을 받았고 작년에는 나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오페라 ‘아이다’ 공연을, 금년에는 국내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과 ‘카르멘’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지금 이 시각 이탈리아에서 그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의 집념과 집중력을 우리는 앞으로 기대하며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신인 성악가가 나타나 무대까지 오르는데 많은 조력자들이 있다. 이번 경우 그의 성공적인 가도를 열어준 것은 바로 프로덕션 매니저인 박갑선 팀장이었다. 그녀의 결정이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 나 같은 연출가들의 바람을 실현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Museo Nacional del Prado)

글·사진 김성민 (주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인문학 강사)

1 광장 중앙에 있는 시벨레스 분수(Fuente de Cibeles)

2 프라도 미술관(Museo Nacional del Prado)

3·4 프라도 미술관 입구





“미래를 내다보고자 하는 자는 과거를 돌이킬지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정치가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1527)가 남긴 말이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사람의 타고난 심성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역설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다. 필자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유명 지휘자 선생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의 화성이나 기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보다 먼저 곡을 만든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작곡가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사람을 알고 나니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곡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필자는 2018년부터 유럽 미술관 기행으로 글을 쓰고 있다. 부족하지만 독자 여러분이 과거의 먼 유럽의 이

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복잡한 스페인의 역사와 프라도 미술관의 설립 배경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나 살라토르 달리(Salvator Dali, 1904~1989) 등 19세기 이후 수많은 화가들이 탄생했던 스페인이지만 그 이전에는 그렇게 이름 있는 화가들이 없었다. 왜냐하면 스페인은 700년대 초반부터 북아프리카 아랍인들의 공격을 당했고 1492년 다시 그들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내기까지 약 800년 가까이 전쟁으로 얼룩졌기 때문이다(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이후 신대륙 발견으로 막대한 부가 쌓이기 시작했고 스페인을 다스렸던 합스부르크 가문은 왕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많은 궁전들을 건축하며 유명 미술작품

유럽 박물관 기행

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1700년대 이후 합스부르크 가문이 사라지고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스페인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스페인에 비해 비교적 앞서갔던 프랑스 출신 왕들은 시민들을 계몽시키고 문화, 예술적으로 시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1700년대 중반부터 프라도 미술관 건립을 추진했다.

‘프라도’라는 말은 ‘프라토(Prato, 초원)’에서 유래되었는데, 지금은 마드리드의 중심부인 아토차(Atocha)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립 당시 귀족들이 마차를 타고 도착하기 용이한 도심 근처 초원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프라도 미술관은 아침 10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데 마감 2시간 전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기에 1유로가 아까운 배고픈 여행자들에게는 상당히 고마운 미술관이다. 프라도 미술관은 오스트리아 빈과 벨기에를 다스렸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배경 덕분에 매우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지금은 약 8000점 이상의 회화 작품을 보유하고 그 가운데 약 1300점의 회화를 상시 전시하고 있다.

스페인 고전 회화의 왕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Velasquez, 1599~1660)

우리가 흔히 그림을 잘 그린다는 표현은 현실을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식의 그림을 자연주의회화 혹은 고전회화라고 하는데 19세기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사진기 덕분에 더 이상 사실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어졌다) 오랫동안 회화사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오늘 소개하는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스페인 고전회화에서 약 100년이라는 차이를 두고 활약했던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 1746~1828)와 함께 가장 중요한 화가로 평가받는다. 벨라스케스는 스페인 남부 세비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당시 세비아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해지는 물류의 중심지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세비아 출신의 많은 사람들은 수도 마드리드의 정관계로 진출해있었다. 벨라스케스는 어린 나이에 이미 스승 파체코의 낙점을 받았고 세비아 출신 총리였던 올리바레스 공작의 도움으로 20대 초반에 마드



리드 왕궁으로 진출하게 된다. 특유의 진중한 성격과 출중한 실력으로 왕의 총애를 입은 벨라스케스는 궁정 예술가에서 시작해 이후 건축 회계부장이라는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된다. 프라도 미술관에는 벨라스케스가 왕궁에서 그린 수많은 그림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녀들(Las Meninas, 1656)'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17세기 가장 유명한 작품

작품에는 큰 공간속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한다. 무엇보다 가장 가운데 빛을 가장 많이 받는 어린 소녀는 마르가르타 공주이다. 그림 오른쪽에는 당시 궁정에서 자주 보였던 소인병을 앓고 있는 광대들이 보이며 그림 왼편에는 우리를 쳐다보는 화가 벨라스케스의 자화상이 보인다. 처음 그림을 보면 화가가 공주를 그리는 그림으로 이해되지만 그림 가운데 벽면을 보면 거울에 비친 당시 왕 펠리페 4세와 왕비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그 순간 감상자는 그림 속 화가가 그리는 대상은 마르가르타 공주가 아니라 감상자의 위치(그림의 밖에 위치한)에 서있는 왕과 왕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이 그림은 지금까지도 명쾌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 그림이다. 수많은 의혹 가운데 하나는 거울의 위치가 정중양이 아니라서 원근법적으로 거울에 비친 왕과 왕비가 감상자의 위치에 서있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혹자는 거울의 모습은 화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비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세 가지를 통해 벨라스케스 심리 상태를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화가의 어색한 위치이다. 실제 화가가 등장하는 그림의 왼편은 벨라스케스가 수없는 수정을 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자신을 어디쯤에 그려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벨라스케스 가슴에는 산티아고 기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십자가가 있는데 죽기 직전 기사 작위를 받은 벨라스케스가 덧칠 작업을 통해 그려 넣었다고 한다. 권력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두 번째는 그림 오른쪽의 벨라스케스가 종종 그렸던 궁정 광대들인데 당시 광대들은 일반 시민들보다 생활환경은 좋았으나 자유를 박탈당하고 궁전에 소속되어 평생을 살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거울 위에 걸려있는 두 개의 그림들이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그리스 신화 속 아라크네와 마르시아스의 모습이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둘 다 절대적인 신에게 대항했다가 저주를 받았던 주인공들이다. 이 모든 것을 해석하면 벨라스케스는 어린 나이부터 궁정



5 화가 벨라스케스의 동상

6 화가가 종종 그린 왕궁의 광대

7 벨라스케스 작 '시녀들(Las Meninas 1656)'

예술가로 성공을 이루며 권력의 핵심이 되었고 왕의 도움으로 기사 작위까지 받았지만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이 아닌 왕과 귀족들이 시키는 그림만 그려야 했다. 마치 자유를 박탈당한 궁정 광대와 같이 말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신과 같은 왕을 거역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했고 그런 감정들이 '시녀들'이라는 그림 속에서 표출되어졌다.

성공과 행복의 차이

벨라스케스는 분명 성공한 화가였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본인 최고의 작품 속에 이런 안타까운 상징들을 넣었으니 말이다. 성공은 남들이 판단하지만 행복은 내가 선택한다. 얼마 전 힘든 일 때문에 고민하던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해준 말이다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는 분명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남들이 판단하는 나의 성공보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선택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행복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 같다. 행복과 만족, 자유, 이런 단어들이 나와 독자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천년고찰
직지사를 품고 있는

김천
여름여행



직지사



김천 반곡포도마을

향긋한 포도향으로 가득한 반곡포도마을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짧았던 장마도 끝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던 지난 7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들과 떠나는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7월 테마여행은 천년고찰 직지사가 자리한 김천, 사명대사의 출가득도 사찰로 이름난 직지사와 시와 음악이 실개천을 따라 흐르는 직지문화공원, 그리고 향긋한 포도향으로 가득한 반곡포도마을까지 김천의 싱그러운 여름을 느껴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김천여행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이유진, 박예진 씨가 동행하면서 정기회원들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세 시간을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포도 특구지역인 김천 반곡포도마을. 마을 전체가 포도밭을 일구고 있는 포도의 주산지로, 뛰어난 재배기술력으로 유기농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재배가 어려운 무농약 캠벨에서부터 씨없는 거봉, 향이 진한 청포도, 눈으로 보기도 매혹적인 홍포도까지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반곡포도마을에 도착하자 지난 몇 년간 테마여행을 통해 인연을 맺은 포도농장 '이슬촌'의 최재춘 촌장님이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아준다. 먼길을 달려온 회원들을 위해 마을에서 특별히 준비한 홍포도와 거봉, 청포도의 달콤한 그 맛에 포도를 향한 회원들의 손과 입이 분주해진다. 본격적인 포도따기 체험을 위해 향긋한 포도향으로 가득한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 주렁주렁 매달린 홍포도가 회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굵적굵직한 포도송이에 서너송이만 따도 박스가 가득 찬다. 정성스럽게 수확한 포도박스를 들고 마을 입구에 자리한 포도홍보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포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포도홍보관에서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 내내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이유진, 박예진의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회원들의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 7월 26일 있을 부산시립합창단 무대에서의 만남을 약속하며 아쉬움을 달랜 회원가족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직지사로 향했다.

오후 본격적인 직지사 탐방에 앞서 푸짐한 산채한정식으로 점심식을 마친 정기회원들은 미리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와 직지사 탐방에 나섰다. 신라 눌지왕 2년인 418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직지사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선종의 가르침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창건주인 아도화상이 김천의 황악산

테마가 있는 여행



을 가리키며 저 산 아래에도 절을 지을 길상지(吉祥之地)가 있다고 하여 이름 부쳐졌다는 설, 그리고 고려의 능여화상이 직지사를 중창할 때 직접 자기 손으로 축지하였기에 부쳐진 이름이라는 설이 전해져온다. 특히 직지사는 조선시대 사명대사가 출가하여 득도한 절로 유명한데 현재 정내에는 대웅전(1735년 중건)을 비롯해 천불이 모셔져 있는 비로전(1661년 창건), 약사전, 극락전, 응진전, 명부전, 사명각(泗溟閣) 등이 남아 있다. 중요문화재로는 국보인 금동6각사리함과 보물인 석조약사불좌상, 대웅전앞 3층석탑 2기, 비로전앞 3층석탑, 대웅전 삼존불탱화 3폭 등이 있다. 한여름 뜨거운 벌 아래에서도 회원가족들은 설명 하나라도 놓칠세라 해설사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쫓긋 세운다.

한시간 가량 직지사 탐방을 마친 정기회원들은 직지사 입구에 조성된 직지문화공원 내 자리한 세계도자기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직지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조성된 직지문화공원은 중앙의 음악조형분수를 중심으로 광장, 대형폭포, 어린이놀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과 국내외 17개국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 50점, 20개의 시비(詩碑),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계도자기박물관은 재일교포 2세인 복전영자[福田英字]가 2005년 유럽의 도자기와 크리스탈 작품 1,019점을 기증하면서 만들어졌다. 3곳의 전시실과 영상실을 갖추고 있으며 백자청화모란문호, 청자상감초화문완을 비롯한 한국도자기 30점과 로열크라운더비병, 크라운화병 등을 포함한 유럽도자기 503점, 탈리크 사자, 무라노 앵무새, 빅토리안 촛대를 포함한 크리스탈 작품 512점 등 총 1,063점에 달하는 도자기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박물관에서 잠시 더위를 식힌 회원들은 인근 공원을 돌며 자유시간을 가졌다. 마침 테마여행이 있던 날이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김천의 자두, 포도를 알리는 '2018 김천자두포도축제'가 열리고 있어 색다른 축제의 재미도 느낄 수 있었다.

축제의 흥으로 가득찼던 직지문화공원을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속에 포도향 가득했던 김천 테마여행은 다양했던 볼거리, 체험만큼이나 정기회원 가족들의 여름여행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9.14 ㉟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포도향 가득한 영천 가을여행

영천의 상징 포도와 함께하는 오감여행을 시작으로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임고서원에서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본다.

일정

- 08: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영천 도착, 영천와인사업단 탐방
포도따기 및 와인만들기 체험
- 12:00 중식
- 13:00 임고서원 탐방
- 15:30 부산으로 출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엽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 팀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08 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강현석(해운대구 해운대로)	박정식(남구 황령대로)	한대희(동래구 총렬대로)
김성우(북구 덕천로)	백채란(연제구 신금로)	홍기표(김해시 삼안로)
김영기(금정구 금강로)	조상혁(남구 석포로)	
남희영(남구 유엔로)	최정화(사상구 학장로)	

기존 회원

김미향(해운대구 좌동순환로)	박명자(수영구 연수로)	이진광(금정구 금강로)
김영희(남구 분포로)	박상건(연제구 중앙대로)	천기순(동래구 동래로)
김재하(서구 감천로)	박정선(금정구 청룡예전로)	
박노진(부산진구 가야대로)	박정순(수영구 구락로)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2018 안무가양성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Body Language

예술감독 김용철
Artistic Director KIM Yongchul



Delicious silk

안무_ 장영진, 박미나

사자. Who

안무_ 이용진

이 세상도 한 세상

안무_ 장래훈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

2018. 8. 24(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관람료 5,000원

문의 607-3121~2 / www.bscc.or.kr

신의 아그네스

Agnes of God

존 필마이어 원작 / 전승환 연출

2018. 9. 13. 목 ~ 9. 15. 토

평일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3시, 6시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공연예술전위

전석 20,000원

문의·예매 051.607.6000 www.bscc.or.kr

중학생 이상 입장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3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더 무지카 아트홀	010-7191-2878
동래문화회관	550-6611
디코소극장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087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1100
숨사탕아트홀	922-4545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아트카페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3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12-4312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3
일터소극장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441-2733
차성아트홀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 소극장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245-5919
AN아트홀 광안	1600-0316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1688-8998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프리뷰

The Carnival of Music



지휘 금난새



첼로 이일세



플루트 이지혜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카니발 오브 뮤직'

매년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 '금난새와 함께 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2018년 무대가 8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인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는 지난 1995년 청소년 해설음악회로 출발한 후 매년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지휘자 금난새의 재미있고 친근한 해설로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클래식 음악계의 스타 금난새는 그동안 탁월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무대로 청중을 찾으며 '클래식 음악의 전도사'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금난새는 지난 1977년 최고 명성의 카라

얀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유럽피안 마스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거쳐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독일 캄머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으며, KBS교향악단 전임 지휘자와 수원시립교향악단,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1998년 '벤치 오케스트라'인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현 뉴월드 필하모닉)를 창단한 금난새는 현재 성남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맡아 시민들을 위한 다채롭고 풍성한 음악을 선사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청소년음악회의 주요 레퍼토리인 작곡가 생

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테마로, 각 동물을 묘사한 14곡의 모음곡과 더불어 첼로, 플루트, 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 타악기 등 각 솔로 연주자들의 연주곡이 가미된 금난새의 해설과 함께 즐기는 신개념 음악극 '카니발 오브 뮤직(The Carnival of Music)'을 선보인다. 특히 Junge Deutsche Philharmonie, 카를스루에 국립극장 오케스트라, 뮌헨 심포니 단원을 역임한 플루티스트 이지혜,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부산피아노트리오 멤버,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음악감독으로 있는 첼리

스트 이일세와 더불어 클래식계의 떠오르는 샛별로 주목받고 있는 김송현(피아노, 서울예술고등학교 1학년), 이민선(피아노, 서울예술고등학교 1학년), 안유빈(클라리넷, 서울예술고등학교 2학년), 황동연(색소폰, 서울예술고등학교 1학년), 신주하(타악기, 서울예술고등학교 2학년)가 출연, 여타 청소년 해설음악회와는 차별화된 수준높은 연주와 뛰어난 연출로 클래식음악 고유의 깊은 매력을 선사한다.

일시 8월 17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프리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

예술의전당 상주오케스트라로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극장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가
 8월 21일 부산을 찾는다.

지난 1985년 창단된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7년부터 국립극장과 전속계약을 맺은 이후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의 정규 레퍼토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예술의전당 상주오케스트라로 지정되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오페라하우스 공연을 위한 전문적인 하우스 오케스트라로 발레, 오페라 음악에 남다른 전문공연경력과 노하우로 독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정치용이 예술감독을 맡아 오케스트라와의 완벽한 호흡으로 클래식 음악애호가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오고 있다. 뛰어난 바톤 테크닉과 곡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내는 통찰력있는 지휘로 단원들을 이끌고 있는 지휘자 정치용은 잘츠부르크 국제여름음악제 부지휘자를 거쳐 라이프치히 방송교향악단, 뮌헨 심포니, 미시간 스테이트 심포니, 프라하 방송교향악단,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을 객원지휘하며 경력을 쌓은 후 귀국, 관현악곡 및 오페라, 현대음악과 전통음악 공연 등 음악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정치용은 제5회 김수근 문화상 공연예술상, 제3회 문화관광부 선정 젊은 예술가상, 제3회 뮤지컬 대상 음악상, 한

국음악상 본상 및 제28회 음악평론가협회 제정 서울음악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지휘과 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창적 해석과 폭넓은 레퍼토리로 평단 및 청중의 꾸준한 호평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협연으로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제2곡 '몰다우'를 시작으로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16', 브람스 '교향곡 제1번 다단조 작품 68'를 들려준다. 지난 2006년 캐나다의 호넨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호넨스 프라이즈와 함께 1위로 입상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손민수는 그동안 카네기홀과 토론토의 글렌골드 스튜디오와 세인트로렌스 센터, 오타와의 국립예술센터, 뮌헨의 가스타익, 이스라엘의 만 오티토리움, 상하이 콘서트홀 등 세계 유수의 콘서트홀에서 연주했으며, 세계 주요 리사이틀 시리즈와 뮤직페스티벌의 초청연주자, 솔로이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손민수는 2010년부터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다 지난 2015년부터 모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초빙되어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일시 8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하나 되는 아리랑



매년 새로운 시도,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음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온 '팔빙수처럼 시원한 음악회'는 특히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지난 4월 남북정상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리는 남북교류 평화콘서트로 마련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탈북피아니스트 김철웅과 탈북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평양민속예술단(단장 주명신),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와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김덕수 사물놀이패,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김세윤,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최원갑(테너), 김창돈(베이스), 남순천(소프라노), 이유진(엘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소리),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이진륜)이 출연, 다양하면서도 신명넘치는 연주로 한여름 팔빙수 같은 시원함을 선사한다.

첫 무대는 피아니스트 김철웅이 들려주는 피아노협주곡 '아리랑 소나타'로, 언젠가 남북한이 하나 되어 아리랑을 부를 그 날을 기대하며 국악관현악곡으로 편곡, 피아노 협연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팔빙수처럼 시원한 음악회 '남북교류 평화콘서트 -하나 되는 아리랑'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날려버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팔빙수처럼 시원한 음악회' 2018년 무대가
8월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고향의 봄', 평양민속예술단 단원 김은아의 사모곡 '어머니', 그리고 '아리랑 낭랑'을 평양민속예술단의 무대로 선사한다.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이준호가 편곡한 '혼의 소리 아리랑'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아리랑을 집대성하여 한민족이 지닌 아리랑에 대한 정서를 담아낸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남순천, 엘토 이유진, 테너 최원갑, 베이스 김창돈, 소리 박성희, 김세윤의 노래로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던 의식으로서의 굿과 풍물놀이에 수반됐던 전통음악을 근본으로 작곡한 정송희의 사물놀이 협주곡 '본'을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강렬한 연주로 들려준다.

들려준다. 평양음악무용대학,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졸업하고 평양국립교향악단 수석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한 김철웅은 지난 2001년 탈북해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교수, 아리랑남북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사단법인 '예술로 함께' 이사장으로 있으며, 음악을 통한 남북화합에 주력해오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남북 통일의 염원을 담은 평양민속예술단의 '통일 아리랑, 통일 돈돌라리'에 이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남누리 북누리,

일시 8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프리뷰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는 지난 2016년 오랜 전통을 이어온 부산시립무용단의 '한 여름밤의 춤 작품전'을 계승한 무대로, 부산의 여름을 빛내는 열정적인 창작 춤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1973년 전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 창단한 부산시립무용단은 현재 김용철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우리의 전통춤을 역동적이면서도 신명나는 춤사위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한 작품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무대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장영진, 박미나의 'Delicious silk', 이용진, 김유성, 강건의 '사자, Who', 장래훈, 허태성, 최의옥의 '이 세상도 한 세상' 등 레퍼토리 세 작품을 통해 참신하면서도 다채로운 창작춤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세 작품 모두 올해 서울무대에서 선보여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던 작품인 만큼 무용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몸으로 쓰는 시'의 첫 작품은 단원 장영진, 박미나가 선보이는 창작춤 'Delicious silk'로, 비단(silk)같은 사랑의 물결과 미세한 떨림의 여운을 듀엣의 춤 미학으로 풀어낸다. 이어지는 무대는 전통탈놀이 '사자춤'에서도 춤적 요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8 안무가양성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을 통해 직접 빚어낸
단원들의 참신한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2018년 무대가 8월 2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가 짙은 북청사자놀음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사자, Who'로, 단원 이용진, 김유성, 강건(객원출연, Dance Project EGERO)의 춤사위로 선보인다.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전해내려오던 '북청사자놀음'은 길놀이·마당놀이·애원성춤·사당춤·갈춤·무동춤·뽕새춤·사자춤·재담·넛두리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자놀음은 신명나는 악곡과 사자춤의 묘기, 흥겨움이 특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북청사자놀음의 움직임과 장면을 차용, 갑과 을의 관계를 단적인

예로 재시하면서 관계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전도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보여준다.

마지막 무대는 전통연희 '미얄과장'을 새롭게 해석한 '이 세상도 한 세상'. 봉산탈춤, 강령탈춤, 은율탈춤 등에 등장하는 미얄과장은 영감과 미얄로 불리는 본처인 할미, 첩의 삼각관계를 다룬 내용으로, 특히 해학미가 두드러진다. 원전을 포스트모던한 시각으로 그려낸 이번 무대에서 장래훈, 허태성, 최의옥 등 세명의 남성무용수가 늙음과 젊음, 과거와 현재, 전통과 미래를 유영하며 가벼운 듯 무겁고, 무거운 듯 가벼운 춤 전개로 원전 속 풍자의 묘미를 전한다.

몸으로 쓰는 시

일시 8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Matinee Concert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후 시즌 세 번째 무대를 거치며 (재)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는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의 깊이있는 해설로 그동안 관객들을 행복했던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끌어왔다. 현악 4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이기도 한 조운범은 지난 2007년 극동아트 TV(전 예당아트TV)의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운범의 파워클래식'을 진행하며 해설자로 명성을 날렸으며 지금까지 전국 기업과 공연장, 공공기관 등 1000회 이상의 강의와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를 시작으로 10월 31일, 11월 28일 세차례 진행되는 시즌 4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헤럴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김봉미의 지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조운범의 해설로 또다시 오페라 음악여행을 떠난다. 이번 '오페라 이야기'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로 소프라노 김방술, 테너 김충희, 바리톤 한명원이 베르디의 대표적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1부 무대는 한국에서 최초로 공연된 오페라이기도 한 '라 트라비아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4 '오페라 이야기 1'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운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4 첫 무대가
8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로, 서곡을 시작으로 '축배의 노래', '아 그대인가', '프로벤자 고향의 하늘과 땅을 너는 기억하니?', '사랑하는 이여, 파리를 떠나서'를, 2부 무대에서는 한 인간의 치절한 비극을 그린 걸작 오페라 '리골레토' 중 '이 여자나, 저 여자나, '우리는 똑같다', '그리운 그 이름', '저주받을 가신이라는 종족', '여자의 마음'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김방술은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미국 맨하탄 음악대학(석사)을 졸업하고 줄리아드 오페라센터 단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울산대학교 교수, 울산싱어즈오페라단 단장으로 있다.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김충희는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쵸바끼노 포르쨌노 아카데미,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바이마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600여회의 오페라 무대에 서왔으며, 2014년에는 독일 튜링엔 주 최고의 예술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안양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한명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탈리아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수석 졸업한 후 문화관광부 장관상, 문화관광부 선정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으며, 오페라 주역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일시 8월 29일 수요일 오전 11: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반갑다 여름아!!!

8월, 풍성한 문화축제가 펼쳐지는 부산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제23회 부산바다축제'를 시작으로 8월 한달간 부산에서는 풍성한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부산을 넘어 전국의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한 부산바다축제와 역동적인 아시아 대표 록페스티벌로 사랑받고 있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에 이어 아시아 유일의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올해도 관객들과 만난다.

여름은 부산에서! 축제의 바다 속으로! 제23회 부산바다축제

8월 1일(수)-5일(일) 부산시내 주요 해수욕장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501-6051, www.bfo.or.kr

부산시내 5개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해양종합관광축제인 '부산바다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1996년 처음 개최된 후 매년 여름, 부산의 바다를 찾는 전국의 피서객들에게 많은 추억거리를 선사하고 있는 '부산바다축제'는 특히 최근 들어 관람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각 해

수욕장만의 색깔을 담은 시민참여형 축제로 운영되면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

8월 1일 국내 최고의 휴가지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에 펼쳐지는 개막 행사에서는 한여름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개막파티와 불꽃소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대규모 살수시설과 인공 풀장을 활용한 올 스탠딩 참여 공연으로, 도끼&더콰이엇, 리듬파워, HAON&Sik-K, 레디&지투, 윤진영 등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을 합합가수들이 총 출동, 축제의 시작을 화려하게 꾸며준다. 2일과 3일에는 전국 최초로 개방형 특설무대와 대형 풀장, 워터 분사기가 설치되어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신나는 음악을 함께 즐기는 '물의 난장(Water Carnival)'과 한 여름 해변에서 펼쳐지는 프라이빗한 풀사이드 파티인 '나이트 풀 파티(Night Pool Party)' 행사가 마련된다.

광안리해수욕장은 축제기간 내내 음악으로 가득 찬다. 8월 2일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DJ들의 신나는 디제잉 경연대회 '2018 BeFM Expat DJ Contest'가, 3일에는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바버렛츠, 킹스턴루디스카, 두 번째 달, 로스 아미고스 등 국내외 최고의 재즈뮤지션이 함께하는 '제7회 부산 Sea & Jazz Festival'이, 5일에는 부산 청년뮤지션과 인디 음악의 만남, 열린바다 열린음악회 '광안리 로맨스 뮤직크'가 열린다. 이밖에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는 3일 아마추어 청소년 밴드들이 출연해 그 실력을 가리는 부산 중학생 밴드 페스티벌 '우리는 밴드 중2다'에 이어 4일에는 부산지역 거주 아마추어 밴드들의 경연대회 '다대포 시민 밴드 콘테스트'가, 5일에는 청소년들의 희망과 꿈이 펼쳐지는 제15회 부산 청소년 바다축제가 펼쳐진다.



**음악이 즐겁고, 사람이 즐겁고,
자연이 즐겁다, 三樂!**
2018 부산국제록페스티벌

8월 10일(금)-12일(일) 삼락생태공원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501-6051, www.bfo.or.kr

지난 2000년 첫 발을 내딛은 후 매년 여름, 국내외 최정상 록밴드들이 부산을 찾으면서 국내 최장수 록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올해도 그 뜨거운 축제의 장을 즐기기 위해 전국의 록매니아들이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8월 10일부터 사흘간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리는 2018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음악+사람+자연을 즐기는 삼락(三樂)'을 주제로, 메인 무대인 '삼락 스테이지'를 비롯해 국내외 록 인디뮤지션이 참여하는 '그린 스테이지', '라이징 스테이지', '쿨링 스테이지' 등 4개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마니아층을 비롯해 일반 대중이 록에 쉽게 다가가고 즐길 수 있도록 매년 무료로 열고 있다.

올해 축제를 앞두고 1, 2차 라인업 공연일이 미리 공개되면서 그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8월 10일에는 조선 핑크의 개척자라고 불리며, 크라잉넛과 함께 한국 핑크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는 노브레인과 일렉트로니카 밴드 글렌체크, 포스트 하드록 밴드 해리빅버튼, 4인조 모던 락 밴드인 디어클라우드, 그리고 해외



문화가화제

밴드로 태국 언더그라운드 메탈 씬에서 주목받고 있는 레트로스펙트(Retrospect)가 무대에 오른다. 이날인 11일에는 감성적이고 세련된 모던록을 추구하는 4인조 모던록밴드 몽니와 9와 숫자들,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진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5인조 록밴드 슈퍼키드, '아프로 아시안 펑크'를 표방하는 월드뮤직 그룹 '앗싸(AASSA), 지난해 2017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록배를 대상팀인 서울상경음악단, 그리고 China's Top Band에 출연해 Best Live Performance Indie Band 상을 받은 중국밴드 Sixi,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대한민국 대표 록밴드 YB를 시작으로 로맨틱펀치, 밴드 잔나비, 락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 부산의 4인조 밴드 세이수미가 관객들을 뜨거운 록의 세계로 안내한다.

2016년 처음 선보인 후 매년 참가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전국밴드경연대회 '부록배틀'은 부산과 서울에서 예선(라이브 심사)을 거친 후 페스티벌 기간인 8월 11일 '라이징 스테이지'에서 본선 경연이 펼쳐진다.

웃음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부산의 여름 제6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8월 24일(금)-9월 2일(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야외극장, 부산디자인센터 이벤트홀, 신세계센텀시티 문화홀, 영상산업센터 컨퍼런스홀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조직위원회 916-8828, www.bicf.co.kr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 국제코미디페스티벌로 시작해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코미디 축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8월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부산바다를 웃음바다로 만들 역대급 페스티벌을 기대케 하는 이번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서는 국내외 세계적인 코미디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실내 공연 뿐 아니라 해운대 구남로에서 진행되는 코미디 스트리트와 야외공연장에서의 오픈콘서트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대한민국 코미디의 품격을 한 단계 성장시켰다고 호평 받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의 여섯 번째 화려한 막을 여는 개막식은 8월 24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의 상징이 된 국내외 최정상 코미디언들이 참여하는

블루카펫에 이어 성화봉송을 시작으로 초대가수의 축하무대와 국가대표 코미디팀 웅알스의 공연, 코미디 데뷔 40주년을 맞은 '영원한 오빠' 임하룡의 임하룡쇼, 그리고 세계 각국의 특별한 코미디 갈라쇼까지 최고의 무대가 펼쳐진다.

국내외 유명 코미디언들의 초청공연으로 마련되는 '국제코미디페스티벌'은 행사기간 동안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과 부산디자인센터 이벤트홀, 신세계센텀시티 문화홀, 영상산업센터 컨퍼런스홀 등 부산 전역에서 만날 수 있다.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자랑하는 대표 간판공연 '이리오쇼'를 비롯해 애드립의 신 이상준표 개그를 만나볼 수 있는 '개그지', 육아에 지친 대한민국 엄마들을 위한 세계 최초 리얼육아 폭풍공감 힐링 코미디 토크쇼 '투맘쇼',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극식 개그공연 '투갓쇼', 관객참여형으로 이뤄진 폭풍애드립 코믹개그컬 '드립걸즈', 대한민국 최초 듀오 스탠드업 코미디쇼 '까브라더쇼', LA, 뉴욕, 시카고에서 만여명의 관객을 모은 다섯 남자의 개그쇼 '쇼그맨', 마이크 하나로 웃기는 한국 스탠드업 코미디꾼의 시작 '스탠드업 라이브 코미디쇼', 반전과 기예가 가득한 세대와 언어를 뛰어넘는 드로잉 서커스 '크로키키 브라더스', 국내 유일무이한 어린이를 위한 교육 코미디극 '쫓아맨과 멜롱이', 부산을 웃음과 공포로 몰아갈 호러코미디극 '코미디몬스터즈'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웃음을 책임진다.

이밖에 부대행사로는 국내외 코미디언들이 부산지역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코미디 공연을 보여주는 깜짝이벤트형 프로그램 '코미디 스쿨어택', 해운대 구남로 일대를 웃음의 바다로 만들 버스킹 공연 '코미디 스트리트'와 부산시민들이 즐겨찾는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관객들을 위한 무료 코미디 공연 '오픈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음유시인(音遊詩人)의 숨결

2018 제9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8월 29일(수)-10월 16일(화) 부산문화회관, 區 문화회관, 국립부산국악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18 제9회 부산마루 국제음악제’가 8월 31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마루’는 ‘파도가 일 때 치솟은 물결의 꼭대기, 산 위의 정상’이라는 뜻을 지닌 순수한 우리말로,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심 속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올해 부산국제마루음악제의 주제는 ‘음유시인(音遊詩人)의 숨결(The Spirit of a Troubadour)’. 중세 유럽 시대, 각 지역에 문화예술을 전파하여 유럽의 문화예술을 꽃피운 음유시인처럼, 그들의 숨결이 음악제를 통해 부산에서 다양한 공연예술로 꽃 피우고,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전하고자 전 세계 20여개국 2,000여명의 연주자들이 출연,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올해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중국 항저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오케스트라 드 라 프랑코포니,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창원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과 초청연주자들의 앙상블이 어우러지는 ‘메인콘서트’를 비롯해 해외 초청연주자들의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앙상블 콘서트’, 관객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프롬나드 콘서트’, 부산지역 음악 영재들과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 라이징 스타, 부산연주자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부산음악인 시리즈’,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 부산지역 내 학교를 찾아가는 아웃리치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018 제9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연이자 메인콘서트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 항저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현재 단원 116명으로 구성된 중국 항저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9년 설립된 후 그동안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 파보 예르비, 정명훈, 권터 헤르비히, 오코 카무, 헤수스 로페즈-코보스 등 세계적인 지휘자를 비롯해 유명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며 세계 무대에 그 이름을 알려왔다. 항저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 겸 예술감독이자 차세대 지휘자로 각광받고 있는 지휘자 양양(Yang Yang)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20

◇◇◇◇◇

앙상블콘서트 I 8월 29일(수) 오후 7:30 사상 다누림홀

메인콘서트 I [개막공연] 8월 31일(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메인콘서트 II 9월 1일(토)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음악인시리즈 9월 3일(월), 10일(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메인콘서트 III 9월 5일(수)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앙상블콘서트 II 9월 6일(목)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메인콘서트 IV 9월 7일(금)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메인콘서트 V 9월 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드림프로젝트 9월 9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앙상블콘서트 III 9월 11일(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메인콘서트 VI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 9월 13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앙상블콘서트 IV 9월 14일(금)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메인콘서트 VII [폐막공연] 9월 15일(토)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프롬나드 콘서트 10월 10일(수), 15일(월), 16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항저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퀘이사 색소폰 콰르텟

문화가화제



테오티우아칸 금관앙상블

세기 선구적인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1860~1911)가 생의 한복판에서 느낀 극단의 고통과 그 끝에 찾아온 환희의 순간을 독창적으로 그려낸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공연은 8월 3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항저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뒷날인 9월 1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캐나다 퀘벡음악위원회(Québec Music Council)의 독창적인 OPUS상을 6회 수상한 퀘이사 색소폰 콰르텟과 협연무대를 갖는다. 마리 샤탈 르골레어, 마티유 르클레어, 앙드레 르루, 장 마르크 부샤드 등 4명의 색소포니스트로 구성된 퀘이사 색소폰 콰르텟은 지난 1994년 창립 이래 클래식 음악에서 재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레퍼토리로 캐나다, 멕시코, 미국 및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해오고 있다.

9월 5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과 7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는 캐나다의 젊은 교향악단인 오케스트라 드 라 프랑코포니(Orchestre de la Francophonie)가 관객들과 만난다. 오케스트라 드 라 프랑코포니는 2001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01 Jeux de la Francophonie (Francophone Games, 프랑스어를 모국어나 행정 언어로 쓰는 국가들이 참가하여 예술과 스포츠 두 분야에서 경쟁을 치르

는 대회)’를 위해 창단됐으며, 오케스트라 창립부터 장 필립 트렘 블레이가 예술감독 및 수석지휘자를 맡아 젊은 오케스트라다운 패기 넘치는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5일에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중인 젊고 우수한 연주자들로 구성된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핀란드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마크 고토니, 7일에는 아시아 윈드 목관4중주와 호흡을 맞춘다. 지난 1991년 핀란드 이위 베스퀼레 예술축제에서 ‘올해의 데뷔(Devut-of-the-Year)’로 우승한 마크 고토니는 그동안 전 세계를 무대로 솔리스트와 실내악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2004년부터 4년간 유럽 연합 챔버 오케스트라 지도자이자 음악 감독을 역임한 바 있다.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오보이스트 사토키 아오야마, 대만의 대표적인 클라리네티스트 웨이 령 첸, 중국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바수니스트 란송 리, 김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Winds 예술감독이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호르니스트 김영률로 결성된 아시아 윈드 목관4중주는 이번 무대에서 오케스트라 드 라 프랑코포니와 함께 모차르트 ‘목관4중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K.297b’를 들려준다.

최정상의 피아니스트에서 지휘자로 화려하게 비상한 김대진이 이끄는 창원시립교향악단과 질버 가르부르크 피아노듀오가 함께하는 메인콘서트 다섯 번째 무대는 9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피아니스트 지반 질버, 가르부르크 길로 구성된 질버 가르부르크 피아노 듀오는 그동안 전 세계 무대를 돌며 관객과 비평가로부터 최고의 피아노 듀오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9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열리는 메인콘서트 여섯 번째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국내외 연주자들의 경연을 통해 우수한 연주자를 발굴하기 위한 ‘쿤체르토 컴피티션 갈라 콘서트’ 본선무대가 펼쳐진다. 폴란드 출신의 지휘자이자 작곡가로, 폴란드 쇼팽국립음악원 교수로 있는 시몬 카발라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아티스트 부문의 박찬미(바이올린), 이예은(색소폰), 아티스트 부문의 윤수정(피아노), 홍채진(플루트), 신효은(바이올린), 김민성(호른)이 마지막 우승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질버 가르부르크 피아노듀오



오케스트라 드 라 프랑코포나

2018 제9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폐막공연은 9월 15일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열린다. 이날 무대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과 그의 세대 중 가장 뛰어난 플루티스트라 평가받는 이탈리아 출신의 플루티스트 주세페 노바, 테오티우아칸 금관양상블이 출연, 동서양 음악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무대가 펼쳐진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또다른 특별한 무대인 해외 초청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양상블 콘서트는 8월 29일 사상 다누림홀과 9월 6일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1일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4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네차례 펼쳐진다. 퀘이사 색소폰 콰르텟(8월 29일), 트리오 카덴자, 콰텟 드 방 금관5중주, 콰텟 드 고흐드 현악5중주, 에이션트 보이시스(9월 6일), 바이올리니스트 마크 고토니, 호른니스트 윌리엄 퍼비

스, 피아니스트 이미혜(9월 11일), 테오티우아칸 금관양상블(9월 14일) 등이 출연해 환상적인 양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이밖에 부산지역 음악 영재들과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 라이징 스타, 부산연주자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부산음악인 시리즈'는 9월 3일과 10일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는 9월 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관객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프롬나드 콘서트'는 10월 10일과 15일, 16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열리며, 8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부산지역 내 학교를 찾아가는 아웃리치 콘서트가 펼쳐진다.

미하일 플레트네프&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완벽한 호흡으로 들려주는 거대한 서사시



◆ 음악평론가 신설령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유명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본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다.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이하 RNO)는 피아니스트, 지휘자, 작곡가로 다방면의 음악적 활동을 하는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1990년 창단하고, 여러 페스티벌에 초대되고, 세계 투어 연주를 하는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는 악단이다. 이날의 연주는 글라주노프의 ‘중세시대로부터’ 중 ‘프렐류드’로 시작되었다. 이 서곡 연주에서 RNO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듯한 강렬함과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대비시키며 짧은 곡이지만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다.

두 번째 곡은 에스더 유가 협연하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이었다. 에스더 유는 2010년 국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6살의 나이로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던 주목받는 연주자이다. 그녀는 협주곡 시작부터 시벨리우스 특유의 신비감 있는 선율을 아름답고도 깊이 있게 표현함으로써 청중을 끌어들이었다. 오케스트라는 여리고 세심한 반주로 무대 위의 협연자를 온전히 드러내 주었다. 2015년 자신의 데뷔 앨범으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낸 바 있는 에스더 유는 뒤이어 나오는 기교적인 부분도, 카덴차 부분도 깔끔하면서도 깊이 있는 해석으로 연주하여 이 곡이 가장 자신 있는 곡 중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오케스트라는 때로는 독주자가 완전히 자신의 호흡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때로는 웅장한 사운드로 마치 교향곡의 한 부분을 연주하듯이 하면서 협주곡에서도 그들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였다. 에스더 유는 제2악장을 긴 호흡으로 끌어다가며 자신의 음악세계를 펼쳐보였고, 바이올린의 기교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는 제3악장에서는 당당하고도 화려한 연주로 그가 다음 세대를 이끌 연주자임을

청중들에게 각인시켰다. 청중의 환호에 앙코르곡으로 답한 그녀는 ‘밀양 아리랑’을 선택하여 청중과의 교감을 시도했다. 겨우 5개의 음으로 노래하는 주제 선율에 깊은 감정을 실어 노래하던 그녀는 순식간에 팡팡 튀는 20대 감성으로 현란하게 변주 부분을 연주하여 원곡과는 다른 색채의 음악을 들려주었다

RNO의 마지막 연주곡은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모음곡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지휘자인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편곡한 버전으로 연주했다. 낭만적 이야기를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가 화려하고도 웅장하게 그려나감으로써 동화 속 궁전은 더욱 장대하고, 파티는 화려하며,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마녀의 등장으로 인한 불안과 갈등 구조는 긴장감을 더했다. 익히 아는 이야기에 음악의 추상성이 더해지면 이야기는 더 풍성해지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더 광대한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지휘자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능력 또한 탁월했으며, 이로 인해 한편의 동화는 거대한 서사시가 됐다. 이 때 눈에 띄는 장면이 오케스트라 악장의 곡 중 솔로연주였다. 꽤 긴 곡을 암보로 연주하는 악장은 흰 머리카락과 흰 수염의 연륜이 있는 연주자로, 마치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동화 속 사람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듯 연주하며 오랫동안 지켜왔을 오케스트라의 한 부분을 여전히 잘 감당하고 있었다. 이날 원래 예고된 연주곡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보다는 좀 더 드라마틱한 스트라빈스키의 발레음악 ‘불새’였다. 사실 ‘불새’ 연주를 더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 생각은 미하일 플레트네프와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가 완벽한 호흡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로 인해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부산시립극단 제62회 정기공연 ‘상사화’ 지역의 이야기가 연극으로 피어나다



◆ 경성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영희

부산시립극단이 탄생한 지 20년이 되었다. 성년을 맞은 셈이다. 연극은 배고픈 예술이라는데 안정된 환경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배우에게 축복이다. 어디 배우뿐일까.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즐길 수 있는 연극, 이 얼마나 즐거운 축제인가. ‘상사화(홍선주 작, 변진호 연출, 7월 19월-2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는 부산시립극단의 20주년 기념공연이다. 김해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야 전설인 황세와 여의의 사랑에 작가적 상상력을 더하고 노래와 춤 그리고 무술 등 연극적 즐거움을 활용하여 뮤지컬로 만들었다. 성년을 맞은 연극 공연으로 안성맞춤인 셈이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이나 셰익스피어의 ‘햄릿’ 등 이른바 고전으로 불리는 많은 작품들은 신화나 전설에서 온 경우가 많다. 우리 지역 곳곳에 있는 전설과 우리 삶에 숨어 있는 설화 또한 작가적 상상력을 만나 명작으로 거듭날 수 있을 터, 그 점에서 ‘상사화’는 지역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다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이다.

여의와 황세 전설은 다음과 같다. 여의와 황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들로부터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여의 아버지의 변심으로 여의는 남장을 하고 황세와 친구처럼 지낸다. 세월이 흘러 여의가 여자인 줄 안 황세는 사랑을 느끼고 둘은 사랑을 맹세한다. 신라가 가야로 침입하면서 황세는 전쟁에 나가게 되고 전쟁에서 쌓은 공으로 가야왕은 황세를 부마로 삼는다. 어쩔 수 없이 여의는 황세와 이별을 하지만 그리움에 병을 얻어 그만 죽어버린다. 황세도 여의를 그리워하다 따라서 죽는다. 지금도 김해에는 여의와 황세가 오줌 멀리 누기 놀이를 하며 놀았던 황세 바위가 있다.

‘상사화’는 전설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따른다. 스님의 예언과 금기, 금기의 파계 등 작은 변화는 있지만 여의와 황세의 언약과 언약

불이행 이후 죽음 등은 유사하다. 현대 현대극으로 태어난 ‘상사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 전개가 작위적이고 추상적이다. 여의가 이미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황세, 그리고 황세가 전쟁터에서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여의. 두 사람의 오해부터 이야기를 풀 순 없을까. 비록 비극으로 끝날지라도 오해를 풀고 장애를 벗어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안타까움과 비극성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전설은 장소에 얽힌 이야기이다 보니 그 이야기 전개가 다소 작위적일 수는 있지만 현대극에서 스토리는 행위에 대한 개연성과 구체성이 필요하다. 뮤지컬에서 장면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 전개의 강한 힘, 그리하여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는 힘이다. 드라마는 설명이 아니라 보여주기, 자막을 통해 두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비(非)드라마적이다.

이번 연극에서 아이들의 활약이 컸다. 10명의 아이들은 황세와 여의의 어린 시절 친구들이다. 키가 크거나 작은 아이, 똥똥하거나 훌쩍한 아이, 말이 분명하거나 느린 아이, 표준어를 쓰거나 경상도 방언을 쓰는 그들은 칼싸움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오줌 누기 내기를 한다. 그들의 대사 전달력은 어른 배우보다 더 좋아서 선명하게 귀에 들어온다.

과거와 현재, 여의, 황세, 유민의 어린 시절과 어른의 시간을 무대에 동시적으로 보여준 연출도 인상적이었다. 어린 여의와 어른 황세의 만남 등의 시간 교차는 연극의 시, 공간적 제약을 넘어 과거와 현재 그 운명적인 힘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시적인 장면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 지역의 전설을 뮤지컬로 바꾸었다는 것, 더운 여름, 관객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발레리노 김용걸과 함께하는
‘Summer Ballet Festival’

일 시 8월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러시아 볼쇼이발레단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배우 윤이 예술감독을 맡은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발레단, 파리오페라발레단 솔리스트를 역임하고 현재 김용걸댄스씨어터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는 발레리노 김용걸을 비롯하여 국내외 발레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20여 명의 무용수들이 함께한다.

프로그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그랑 파드 뒤 Conscience(의식)
백조의 호수 중 ‘혹조 그랑 파드 뒤’
Les Mouvement(레 무브망) 등

2018 부산국제사진제
What is photography for me?

일 시 8월 11일(토)-9월 2일(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부산디자인센터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국제사진제 조직위원회 www.bipf.kr



사진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부산의 각 사진단체의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추진하는 자생적인 국제사진제인 2018 부산국제사진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여는 이번 전시에서는 ‘나에게 사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주제전과 특별전, 국내외 사진작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자유전, 그리고 학생공모전, 사진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2018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일 시 8월 15일(수)-30일(목)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초·중·고·대학생 본인 5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 1주년을 맞아 펼쳐지는 ‘2018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올해는 11개 팀이 출연, 더 화려한 라인업과 풍성한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만난다.

15일(수) 오후 5:00 아베끄 스트링 콰르텟

볼프/이탈리아 세레나데
모차르트/현악4중주 제19번 다장조 K.465 ‘불협화음’
라벨/현악 4중주 바장조 M.35
● 바이올린/이석중, 반선경
● 비올라/진덕 ● 첼로/윤여운

16일(목) 오후 7:30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바버/현을 위한 아다지오 작품 11
파가니니/대비올라를 위한 소나타 다장조 작품 35 등
● 지휘 및 리더/임병원
● 바이올린/임병원, 서영희, 김나영, 조우태, 김민정, 금성빈, 이기묘 조혜란
● 비올라/최영식, 김민경, 권덕진
● 첼로/이동열, 김유미, 김무늬
● 더블베이스/윤민우 ● 협연/최영식(비올라)

17일(금) 오후 7:30 올라 비올라

바흐/칸타타 BWV 147
레스피기/파사칼리아 다단조 BWV 582
브람스/현악 6중주 제1번 내림가장조 작품 18 등
● 음악감독/오순화
● 비올라/홍지혜, 김준성, 김형식, 이상희, 이현주, 홍지희, 손혜민, 김량하, 김혜령, 박미리, 한성철, 정담
● 첼로/서우영 ● 더블베이스/정세라
● 협연/이형민(피아노)

18일(토) 오후 5:00 서울비르투오지

슈베르트/피아노 5중주 가장조 작품 114 D.667 ‘송어’
바버/현을 위한 아다지오 작품 11
조프레/바이올린과 반도네온을 위한 콘체르토 등
● 음악감독/이경선
● 바이올린/이경선 김수현 송지원 노윤정 이서현
● 비올라/변정인 박용은 ● 첼로/김연진 양지욱
● 더블베이스/조용우 ● 피아노/송영민
● 협연/제이조 조프레(반도네온)

23일(목) 오후 7:30 센트챔버소사이어티

루터/현을 위한 모음곡
베버/클라리넷 5중주 내림나장조 작품 34
드보르작/현을 위한 세레나데 마장조 작품 22
● 바이올린/이은옥(리더), 서은아, 오근영, 이현지, 김상미, 성현이, 양은정, 권순지, 조우태
● 비올라/이성호, 손주연, 강수이
● 첼로/문주원, 김다정 ● 더블베이스/윤민우
● 협연/장재혁(클라리넷)

24일(목) 오후 7:30 코리아비르투오지

카푸스틴/현악 4중주 제1번 작품 88
슈만/피아노 4중주 내림나장조 작품 47
드보르작/피아노 5중주 제2번 가장조 작품 81
● 바이올린/박동석, 안세훈 ● 비올라/이화진, 황은비
● 첼로/홍진호 ● 피아노/최현호

25일(토) 오후 5:00 예일양상블플레이어스

하이든/현악 4중주 다장조 작품 76 제3번 ‘황제’
슈베르트/현악 3중주 제1번 내림나장조 D.471 등
● 바이올린/이문경, Yi-Ting Chen
● 비올라/차민정 ● 첼로/Ying-Chi Tang

8월 26일(일) 오후 5:00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C.P.E. 바흐/신포니아 나단조 Wq 185-5
J.C. 바흐/첼바로 협주곡 내림나장조 W.C.59
W.F. 바흐/신포니아 라단조 ‘아다지오와 푸가’ F.65 등
● 음악감독/이일세
● 바이올린/안은탁, 박완서, 송범석, 진성진, 성기쁨, 이상엽
● 비올라/신요한, 천재현, 정하람 ● 첼로/이경성
● 더블베이스/우현수 ● 첼발로/강수근
● 협연/김미은(피아노)

8월 27일(월) 오후 7:30 부산신포니아에타

바흐/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 1043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제2번 내림나장조 K.137
바흐/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가단조 BWV 1041 등
● 음악감독/김영희
● 바이올린/김혜진, 김재원, 박예지, 김주영, 채지원, 고은비
● 비올라/이현지, 황영은, 박정은
● 첼로/전명희, 심어라 ● 더블베이스/조아람
● 협연/양성식(바이올린), 김재원(바이올린)

8월 28일(화) 오후 7:30 프로이데 스트링 콰르텟

드보르작/현악 4중주 제12번 바장조 작품 96 ‘아메리카’
베토벤/현악 4중주 작품 59 제3번 ‘라주모프스키’
● 바이올린/이혜정, 양경아
● 비올라/김성은 ● 첼로/이상경

8월 30일(목) 오후 7:30

무지카비바 앙상블 ‘랩소디, 여름이야기’

리스트/헝가리 광시곡 제2번 올림나단조
머큐리/보헤미안 광시곡 등
● 음악감독 및 리더/박경희
● 바이올린/박경희, 우소라, 최은혜, 임소희
● 비올라/박주연, 강수이 ● 첼로/전명희, 오현진
● 피아노/서혜리 ● 퍼쿠션/이성은 ● 해설/전명희
● 작곡/임지선 ● 협연/이하나(소리)

남카라 바이올린 & 오소라 피아노 듀오 연주회

일 시 8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전석 5만원(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문의 마에스트로 컴퍼니 02-525-2761



남카라는 줄리어드 음악원과 신시내티 음대를 졸업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등 국내외 주요 오케스트라들과 협연 무대를 가져왔으며, 미국 최초의 공식 현악8중주단인 'The Young Eight'의 리더로 미국 전역에서 여러 차례 순회공연을 가지며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오소라는 줄리어드 음대와 이스트만 음대를 졸업하고 줄리어드 음대 10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협연자로 무대에 섰으며 카네기홀 와일 리사이틀 홀, 뉴욕 스타 인웨이 홀, 컬럼비아 대학교 Faculty House 등에서 초청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로 관객들과 만난다.

가족을 위한 꿀잼 음악회 오케스트라 애니메이션을 만나다

일 시 8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010-9371-8987



지난 2007년 열정과 도전의식을 가진 지휘자 손명균을 중심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인들로 결성된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참신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청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인어공주, 아나스타샤,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 킹,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애니메이션 영화 주제곡들을 연주,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 지휘/손명균

제1206회 MBC목요일음악회 오페라 컴퍼니 '그래, 우리 함께'

일 시 8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



오페라 컴퍼니의 성악 앙상블을 통한 스토리텔링 음악회로 마련되는 제 1206회 MBC목요일음악회. 부산 YMCA 오페라 합창단으로 첫 발을 내딛은 후 부산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 있는 오페라 컴퍼니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가족과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을 음악과 영상에 담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클래식에서부터 대중가요, 영화음악 등 우리 귀에 친숙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간다.

- 지휘, 예술감독/이정철(부산시립합창단 총무)

인제의대 관현악단 제37회 정기연주회

일 시 8월 18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김정호 010-4160-9318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관현악단(IJMO, InJe Medical Orchestra)의 37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1981년 공부에 지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음악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인성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 결성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관현악단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환우를 위한 크리스마스 연주회로 음악을 통한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단장/김정호 ● 지휘/진정훈
- 악장/김호성 ● 협연/박형진(바이올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카니발 오브 뮤직'

일 시 8월 17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매년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 청소년음악회의 주요 레퍼토리인 작곡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테마로, 각 동물을 묘사한 14곡의 모음곡과 더불어 첼로, 플루트, 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 타악기 등 각 솔로 연주자들의 연주곡이 가미된 금난새의 해설과 함께 즐기는 신개념 음악극 '카니발 오브 뮤직'을 선보인다.

- 지휘, 해설/금난새 ● 플루트/이지혜
- 피아노/김송현, 이민선 ● 클라리넷/안유빈
- 첼로/이일세 ● 타악기/신주하
- 색소폰/황동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일 시 8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예술의전당 상주오케스트라로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극장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지난 1985년 창단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7년부터 국립극장과 전속계약을 맺은 이후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의 정규 레퍼토리에 참여해오고 있다.

- 프로그램**
 스메타나/교향시 '나의 조국' 중 제2곡 '몰다우'
 그리그/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16
 브람스/교향곡 제1번 다단조 작품 68
- 지휘/정치용 ● 피아노/손민수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팔빙수처럼 시원한 음악회
남북교류 평화콘서트 '하나 되는 아리랑'

일 시 8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리는 남북교류 평화콘서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수석 지휘자 이정필이 지휘하고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과 탈북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평양민속예술단(단장 주영신),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와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김덕수 사물놀이패,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김세윤,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최원갑(테너), 김창돈(베이스), 남순천(소프라노), 이유진(엘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소리),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이근륜)이 출연, 다양하면서도 신명나는 연주로 한여름 팔빙수 같은 시원함을 선사한다.

아트뱅크코리아 창립 20주년 기념연주회 III
피아노의 시인 존 오코너 초청공연

일 시 8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완성도 높은 연주로 찬사를 받으며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아일랜드의 피아니스트 존 오코너 초청공연. 지난 1973년 베토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만장일치 1위 수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존 오코너는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도 존경 받으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제47번 나단조 Hob. XVI:32
슈베르트/4개의 즉흥곡 D. 899 작품 90
J. 필드/3개의 야상곡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다단조 작품 13 '비창'

제9회 웰니스 클래식
(사)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베토벤 황제

일 시 8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부산문화 1600-1803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홍성택이 지휘하고 파라과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석우, 동아대학교 교수가 지휘한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악장, 경남솔로리스트 리더, 부산 클래식 뮤직 사사이더티 음악감독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 LA필하모닉 '베토벤 코랄 판타지' 솔로리스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주최 섬머콘서트 시리즈 솔로리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박소영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에그먼트 서곡'을 시작으로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을 위한 로망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등을 들려준다.

- 지휘/홍성택 • 피아노/이석우
- 바이올린/임재홍 • 소프라노/박소영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4
오페라 이야기 I

일 시 8월 29일 수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후 시즌 세 번째 무대를 거치며 (재)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는 '음악계의 괴물'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의 깊이있는 해설로 그동안 관객들을 행복했던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끌어왔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헤럴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김봉미의 지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조윤범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김방송, 테너 김총희, 바리톤 한명원이 베르디의 대표작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리콜레토'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8 안무가양성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일 시 8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을 통해 직접 빛낸 단원들의 참신한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안무가 양성 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는 지난 2016년 오랜 전통을 이어온 부산시립무용단의 '한 여름 밤의 춤 작품전'을 계승한 무대로, 부산의 여름을 빛내는 열정적인 창작 춤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프로그램

Delicious silk(출연/장영진, 박미나)
사자, Who(출연/이용진, 김유성, 강건)
이세상도 한세상(출연/장래훈, 히태성, 최의욱)

쿠바 음악의 디바
다이메 아로세나 첫 내한공연

일 시 8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R석 7만5천원, S석 6만5천원
문의 한쿠바교류협회 02-2038-2306



27세라는 나이에 현존하는 쿠바 보컬리스 중 테크닉과 카리스마, 파워를 모두 갖추며 그 어떤 장르도 소화해내는 명실상부 디바로 평가받는 다이메 아로세나 첫 내한무대. 2015년 발매된 첫 음반인 '누에바 에라(Nueva Era)'가 미국 공영방송 NPR이 선정한 올해의 50개 베스트 앨범으로 선정되면서 미국 전역을 비롯해 유럽의 대중들과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게 된 다이메 아로세라는 그 해 색소포니스트 제인 버넷과 결성한 프로젝트그룹 마에게로 캐나다 음악계의 권위있는 음악상으로 알려진 주노상(재즈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8 제9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유시인(音遊詩人)의 숨결

일 시 8월 31일(금) 오후 8:00, 9월 8일(토) 오후 5:00, 9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13일(목) 오후 7:30 대극장
문 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18 제9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올해 부산국제마루음악제는 '음유시인(音遊詩人)의 숨결(The Spirit of a Troubadour)'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20여개국 2,000여명의 연주자들이 출연,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8월 31일(금) 오후 8:00 메인콘서트 I '개막콘서트'
현재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 항저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무대로 마련되는 개막콘서트.

예술감독이자 수석지휘자인 양양(Yang Yang)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20세기 선구적인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 입장료/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9월 8일(토) 오후 5:00 메인콘서트 V
최정상의 피아니스트에서 지휘자로 화려하게 비상한 김대진이 이끄는 창원시립교향악단과 질버 가르부르크 피아노듀오가 함께하는 무대.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작품 84
멘델스존/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마장조 작품 5
라흐마니노프/교향곡 제2번 마단조 작품 45

● 입장료/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9월 9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드림프로젝트
부산학생연합오케스트라 외 20개 학교 및 단체가 참여하는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 입장료/초대

9월 13일(목) 오후 7:30 메인콘서트 VI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
국내의 연주자들의 경연을 통해 우수한 연주자를 발굴하기 위한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 콘서트' 본선무대. 폴란드 쇼팽국립음악원 교수로 있는 시몬 카발라의 지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아티스트 부문의 박찬미(바이올린), 이예은(색소폰), 아티스트 부문의 윤수정(피아노), 홍채진(플루트), 신효은(바이올린), 김민성(호른)이 마지막 우승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 입장료/초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 작가 퀸틴 블레이크展 in 부산

일 시 7월 7일(토)-9월 30일(일) 부산시민회관 갤러리
입장료 균일 8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천원, 15인 이상 단체 4천원, 초중고생 3천원, 미취학아동 2천원, 유아·장애인 무료)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32, www.bscc.or.kr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영국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 퀸틴 블레이크 작품전. 영국 작가 로알드 달의 아동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원화 작가로 유명한 퀸틴 블레이크는 지난 60여 년간 따뜻한 그림체와 성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동화들을 꾸준히 발표하며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로 명성을 쌓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퀸틴 블레이크의 초기작에서부터 국내 미 발표작까지 그가 60여년 간 작업해왔던 180여점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3회 늘푸른 연극제 연극 '늙은 자전거'

일 시 8월 18일(토)-24일(금)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극단 전위무대 582-2026



한국연극협회가 연극계에 기여한 원로 연극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제3회 늘푸른 연극제.

올해 연극제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배우 전무송, 권성덕, 오영수와 연출가 강영걸, 전승환, 작가 김영무의 대표작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로, 부산시민회관에서는 첫 지역공연으로 부산에서 활동 중인 연출가 전승환이 극단 전위무대와 함께 한 연극 '늙은 자전거'를 선보인다. 이만희 원작의 '늙은 자전거'는 괴팍한 할아버지 동안과 사고뭉치 손주 풍도가 수년 동안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오다 한 지붕 아래 살게되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그린 가슴 따뜻한 가족 드라마이다.

부산시민회관에서는 첫 지역공연으로 부산에서 활동 중인 연출가 전승환이 극단 전위무대와 함께 한 연극 '늙은 자전거'를 선보인다. 이만희 원작의 '늙은 자전거'는 괴팍한 할아버지 동안과 사고뭉치 손주 풍도가 수년 동안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오다 한 지붕 아래 살게되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그린 가슴 따뜻한 가족 드라마이다.

이삼열밴드 첫 부산공연 엄마가 내게 가르쳐준 노래들

일 시 8월 14일 화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 의 2310 엔터테인먼트 02-578-3188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 있고 영향력 있는 연주자 중 한 명인 키보드리스트 이삼열이 이끄는 이삼열밴드(2310 밴드)의 첫 부산 단독공연.

특히 이번 공연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있었던 프로젝트 공연 '엄마가 내게 가르쳐준 노래들' 앵콜 투어공연의 마지막 무대로, 신디사이저와 바이올린의 연주로 새롭게 해석된 드보르작의 'Song My Mother Taught Me'를 비롯해 내 마음, 가고파, 비폭 등과 같은 한국가곡들을 해금과 색소폰과의 협연으로 새롭게 들려준다.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8년 제4회 부산국악축제

일 시 8월 25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사)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44-5211



국악 스타 남상일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민요에서부터 가사, 가야금병창, 판소리, 타악공연 등 멋과 신명이 넘치는 무대를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남도민요 '동백타령', 가사 '백구사', 가야금병창 '신사절가, 꽃이피었네, 복숭아꽃, 내 고향의봄, 꽃타령', 육자백이와 흥타령, 서도 선소리타령, 판소리 '흥보가' 중 '흥보 박타는 대목' 등

● 사회/남상일(판소리) ● 기획, 연출/송재운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2017/2018 뉴 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X

일 시 8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F1963 석천홀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F1963 760-2604, www.f1963.org



베토벤의 9개의 교향곡 전곡과 낭만파 시대의 대표적인 기악 협주곡으로 구성된 지휘자 금난새와 뉴 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마지막 무대. 재치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지휘자 금난새가 지휘하고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아 정원 황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중 가장 경쾌하면서도 소규모적인 '교향곡 제8번'과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을 들려준다.

줄리아 정원 황은 2017년 캠브리지 대학 세인트 존스 컬리지에서 한국인 최초로 Larmor Award 우등상을 받고 졸업한 후 현재 영국 왕립 음악원 연주자 석사 과정에 있다.

피아니스트 김민주&임하나
건반 위의 아름다운 향연

일 시 8월 11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문의 김민주 010-9885-9237



피아니스트 김민주&임하나의 피아노 듀오 연주회. 김민주는 중앙대학교 피아노과, 독일 카셀시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예중, 부산예고, 한국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출강한다. 임하나의 중앙대 피아노과,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종합예술학교 피아노과 겸임교수, 중앙대, 삼육대에 출강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브람스 '헝가리 무곡', 그리고 '페르귤트 모음곡', 모차르트 '스페인 무곡', 생상 '죽음의 무도'를 들려준다. 곡 해설도 함께 진행한다.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1일, 15일, 22일 공연 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8일(654회) 테너 이철성 독창회 '토스티 가곡의 밤'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엔리코 카루소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테너 이철성 독창회.

부산대학교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까를로 베르곤지, 오르페오, 보게라, 손드리오 전문 오페라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센텀합창단, 아마빌리스 여성중창단, 도란도란 부부중창단, 밀마루 합창단, 보스중창단, 울산 중구여성합창단, 주교좌 중앙성당 그레고리오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성은 그동안 독창회를 비롯 국내외 교향악단과의 협연, 오페라 주역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2018 부산기타페스티벌

일 시 8월 12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010-5198-0074



매년 여름, 전국의 유명한 클래식기타 연주자들을 초청해 마련하는 부산기타페스티벌 2018년 무대.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주최팀인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과 Botti 기타듀오, Guinness 기타과렛,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노영이 출연, 클래식기타 양상블의 향연을 펼친다.

2002년 창단한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은 현재 단장 백승남(해운대 백정형외과의원 원장)을 중심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기타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평생동안 서정적이면서도 기품이 찬 가곡을 작곡하여 이탈리아 가곡의 발전에 기여한 작곡가 토스티 가곡의 밤으로 꾸며진다.

● 특별출연/바리톤 이승민, 피아노 김효성



29일(655회) 부산나눔플루트 정기연주회 '플루트와 타악기가 함께하는 콘서트'

음악평론가 김윤선을 대표로, 음악감독 김윤희를 주축으로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플루티스트들로 구성된 부산나눔플루트 정기연주회.

부산나눔플루트는 지난 201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음악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음악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전하고 있다.

프로그램

레이몬드 기웃/플루트4중주를 위한 디베르티멘토 재즈 차이콥스키/호두까기인형 모음곡 레나드 번스타인/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발췌곡 모음 등

유니세프 기금조성 여름음악회
툼엔제리스 음악회

일 시 8월 14일 화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톼엔제리스 엔터테인먼트 010-3069-9777



차세대 음악가를 꿈꾸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음악도들이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유니세프 기금조성 여름음악회.

매년 여름과 겨울 두차례 기부음악회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음악을 통한 나눔과 봉사에 의미를 두

고 있는 연주자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지구촌 어린이를 생각하며 스스로 마련하는 뜻깊은 무대이다.

● 사회, 해설/박상현

● 연주/박상현(성악·피아노), 최은진(비올라), 윤혜빈(성악), 손해민(바이올린), 김태현(성악), 박수빈(클라리넷), 최은성(첼로), 이호서(성악), 설경화(플루트), 고재윤(클래식기타), 최규범(피아노)

2018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푸디토리움의 시네마브런치

일 시 8월 14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영화음악 감독,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국내 음악계에서 감성 음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푸디토리움 김정범의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콘서트. 영화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 김정범은 현재 성신대학교 전임교수로 재직중이며 SBS 파워FM '애프터클럽'의 DJ로도 활동하고 있다. 8월에는 '낮선 익숙함을 마주보다, 영화로 풀어보는 현대음악'이라는 테마로 영화 '그래비티', '바벨', '컨택트', '디 워릭스' 등 유명 영화 속에 등장하는 현대음악을 푸디토리움 피아노 콰르텟의 연주로 소개한다.

● 진행/푸디토리움 김정범

2018 청소년을 위한 여름 음악회

일 시 8월 16일 목요일 오후 5:00, 1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5천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을숙도문화회관이 마련한 특별한 무대 '2018 청소년을 위한 여름 음악회'.

8월 16일 한여름 백야축제가 열리는 러시아로 음악여행을 떠나는 더 클래식코의 '가즈아! 러시아의 백야 축제!'에 이어 18일에는 경성오페라단의 오페라 콘서트 '사랑의 묘약'을 만날 수 있다.

16일(목) 더 클래식코 '가즈아! 러시아의 백야 축제!'
백야로 장관을 이루는 러시아의 도시 풍경과 함께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무소르그스키 등 러시아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고신의대·간호대 관현악단 제23회 정기연주회

일 시 8월 15일 수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정운봉 010-8524-0069



지난 1993년 창단된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의학계열 오케스트라인 고신의대·간호대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병원 연주회를 비롯한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음악을 통한 정서적 치유를 추구해온 고신의대·간호대 관현악단은 그동안 부산시민들과 삭막한 의료계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랑을 전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춤과 축제를 연상시키는 에너지 넘치고 다이내믹한 리듬이 돋보이는 베토벤 교향곡 제7번과 생상의 '첼로협주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마치 러시아로 여행을 떠난 듯한 감동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중 산책
그노무스/지하의 난쟁이
라흐마니노프/이 곳이 얼마나 좋은지!, 아름다운 그대, 내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지 마오
차이콥스키/둘카(러시아의 시골전경) 작품 59
차이콥스키/그리움은 아는 자만아...
차이콥스키/‘호두까기 인형’ 중 행진곡, 별사탕 요정의 춤, 꽃의 왈츠
보즈네센스키/백만송이 장미
이오시프 코브존/백학(드라마 ‘모래시계’ OST)
하차투리안/발레 모음곡 ‘가야네’ 중 갈의 춤

18일(토) 경성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부산·경남 지방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성오페라단의 오페라 콘서트 ‘사랑의 묘약’.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순박한 청년 네모리노가 농장 지주의 딸인 아디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사기꾼 약장수 툴카마라에게 속아 포도주로 만든 가짜 약인 사랑의 묘약을 비싼 값에 사게 되면서 펼쳐지는 로맨틱 코미디 오페라극으로, 평소 오페라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오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페라 콘서트 형식으로 연출한 무대이다.

애니메이션 속으로 떠나는 안크 플루트 앙상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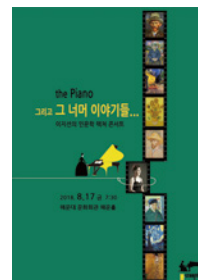
일 시 8월 17일 금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일반 8천원, 어린이 5천원(3인 1만5천원, 4인 2만원, 5인 2만3천원)
문의 안크플루트 앙상블 010-5406-4779



리더 김선영을 중심으로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안크(ANK, Alte bis Neue Kultur) 플루트 앙상블의 무대. 중세 음악에서 21세기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플루트 선율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결성된 안크 플루트 앙상블은 그동안 창단연주회를 비롯해 다수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플루트 앙상블로 즐길 수 있다.

이지선의 인문학 렉처 콘서트 the Piano 그리고 그 너머 이야기들...

일 시 8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의 이지선 010-4553-7772



음악과 인문학이 접목된 색다른 무대인 피아니스트 이지선의 인문학 렉처 콘서트.

추계예술대학교 피아노과와 프랑스 에콜 노르말 최고교육자과정졸업한 이지선은 현재 M. Storium 대표, 네이버 카페 콩비연구소, Youtube 채널 등을 운영하며 예술융합무대를 다수 가져왔다.

이번 무대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미술, 문학, 미디어 아트가 접목된 예술융합 공연으로, 구스타프 클림트, 앙리 마티스, 반 고흐 등 3명의 천재화가들의 작품과 그들의 삶을 미디어 아트와 함께 감상하는 한편 그들의 작품과 연상되는 클래식 명곡을 피아노 연주로 들려준다.

기타공연장

영 피아니스트 콘서트

일 시 8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경피아노스튜디오 010-2881-5921



피아니스트 이해경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영 피아니스트 콘서트.
이해경 피아노 클래스에서 공부하며 차세대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초·중·고등학생 11명이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클레멘티, 모차르트, 베토벤, 리스트 등 우리에게 친숙한 다양한 연주곡을 통해 그동안 갖고 닦은 연주실력을 선보인다.

아라청소년오케스트라 네 번째 이야기 힐링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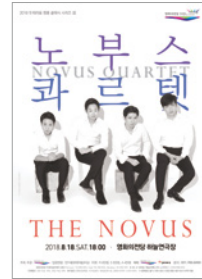
일 시 8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아라 청소년 오케스트라 010-6809-2662



지난 2015년 1월 창단 후 금정구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봉사연주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 아라청소년오케스트라의 네 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로시니 '윌리엄 텔' 서곡, 하차투리안 '가면무도회' 중 '왈츠', 이문세 메들리, 비틀즈 메들리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힐링무대를 선사한다.

2018 두레라움 명품 클래식 시리즈 3 노부스 콰르텟 The Novus-부산

일 시 8월 18일 토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문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대한민국 대표 현악사중주단을 넘어 세계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한 노부스 콰르텟의 무대.
지난 2007년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과 김영옥, 비올리스트 김규현, 첼리스트 문웅휘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젊은 연주자들이 실내악에 대한 사명감으로 결성한 노부스 콰르텟은 2012년 세계 최고 권위의 뮌헨 ARD 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하고 2014년 한국 현악사중주단으로는 최초로 제11회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대한민국 실내악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희망다리 콘서트 in BUSAN

일 시 8월 19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선착순 초대
문의 희망다리 콘서트 010-4667-1519



세계 최초 전신마비 성악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이 장애인의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고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세상을 그리며 음악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해오고 있는 희망다리 콘서트 in BUSAN.

이번 무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문 예술가가 함께하는 무대로, 정통 클래식부터 크로스오버, 대중음악과 퍼포먼스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이남현(성악가), 지혜희(가수), 주린(일렉첼로), 김해린(피아노), 이용천(색소폰), 팝페라 그룹 엘페라, HB choir, 뮤&오 가라찌, 베리타, 부산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임진희(아나운서)

부산챔버스케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37회 프롬나드 콘서트

일 시 8월 23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케어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홍보팀 990-7091-5



기업과 예술이 만나 시민들과 소통하며 매월 마련하는 프롬나드 콘서트 8월 무대.
프롬나드 콘서트는 기업의 리더들이 릴레이 후원하는 부산 경제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전통을 이어가며 부산상공회의소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여름이 가네'이라는 주제로 지휘자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의 협연으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제128회 그랜드자연음악회 해피 패밀리 타악콘서트 노크 런 버스킹

일 시 8월 23일 목요일 오후 3:00
그랜드자연요양병원 이벤트홀
입장료 무료
문의 그랜드자연요양병원 612-0075, grandnature.kr



자연속의 문화와 음악이 함께 하는 명품요양병원인 그랜드자연요양병원(병원장 이재일)이 마련하는 '해피 패밀리 타악콘서트 노크 런 버스킹'은 클래식 타악기와 대중적인 음악 융합을 시도하고 있는 비트인이 전국의 사회복지관을 순회하며 마련하는 무대로, 연주자들의 '해피 패밀리 타악콘서트'와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투게터 타악전시회'가 함께 열린다.
특히 이번 무대는 어르신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친근한 해설로 음악을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S. Modern 타악양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일 시 8월 26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S. Modern 타악양상블 010-3376-2246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타악연주자 송희철을 음악감독으로, 타악기의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S. Modern 타악양상블 정기연주회.

지난 2010년 창단 이후 다양한 무대에 서온 S. Modern 타악양상블은 타악기의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사운드와 익숙한 클래식 곡을 타악기로 편곡, 타악기의 감미로운 선율과 웅장함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편하게 다가가고 있다.

부산예술회관_예감 ; 藝感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국악연희단 류 '고가신조 (古歌新調:옛것에 새로움을 입히다)'

일 시 8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www.bsart.or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우리음악을 새롭게 구성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는 국악연희단 '류'는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현재 부산, 경남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음악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다양한 창작음악 발표와 타 장르와의 교류무대를 통해 전통음악의 다양성을 추구해 오고 있다.

- 연주/하정희(타악), 정주아(피리), 조위현(해금), 전민경(가야금), 신근영(거문고), 강메라(신디사이저), 권다정(아쟁), 김동현(대금), 이지(타악), 엄영진(판소리), 조수연(가곡)

김지원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8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예인예술기획 02-586-0945



통영국제음악제 상주 연주단체이자 현대음악 전문 연주단체인 (사)타임프 앙상블(Ensemble TIMF) 멤버로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현대음악 연주를 이어나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원 독주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재학 중 도독,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윈스터 국립음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김지원은 독일 유학시절부터 유럽 각지를 오가며 20세기 초반의 현대곡부터 전자음악을 아우르는 폭넓은 현대음악을 소개해왔으며 귀국 후에도 다양한 연주활동과 더불어 숙명여자대학교, 동의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동의대학교 콘서바토리에 출강하고 있다.

2018 제9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유시인(音遊詩人)의 숨결

일 시 8월 29일(수)-10월 16일(화) 부산문화회관, 區 문화회관, 국립부산국악원
문의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올해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중국 항정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오케스트라 드 라 프랑코포니,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창원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과 초청연주자들의 앙상블이 어우러지는 '메인콘서트'를 비롯해 해외 초청연주자들의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앙상블 콘서트', 관객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프롬나드 콘서트', 부산지역 음악영재들과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 라이징 스타, 부산연주자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부산음악인시리즈',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금정문화회관 기획공연 11시 브런치 콘서트 크리에이티브 영국 음악여행

일 시 8월 28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1만5천원(커피 제공)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3



유럽의 문화와 역사 속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으로 꾸며지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8월에는 산업혁명과 문학의 나라 영국으로 떠나는 음악여행으로, 세계여행 스토리텔러 김재열의 다채로운 이야기와 더불어 바이올리니스트 장수민, 첼리스트 구희령, 피아니스트 조영훈으로 구성된 아스피아노트리오의 라이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R. V. 윌리엄스/푸른 옷소매 주제에 의한 환상곡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R. B. 셔먼/뮤지컬 '메리포핀스' 중 '침침체리' 등 수곡

주요 일정
 앙상블콘서트 I 8월 29일(수) 오후 7:30 사상 다누리홀
 메인콘서트 I [개막공연] 8월 31일(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메인콘서트 II 9월 1일(토)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음악인시리즈 9월 3일(월), 10일(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메인콘서트 III 9월 5일(수)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앙상블콘서트 II 9월 6일(목)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메인콘서트 IV 9월 7일(금)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메인콘서트 V 9월 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드림프로젝트 9월 9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앙상블콘서트 III 9월 11일(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메인콘서트 VI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 9월 13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앙상블콘서트 IV 9월 14일(금)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메인콘서트 VII [폐막공연] 9월 15일(토)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기타공연장

연극 | Play

스릴러연극 서툰살인

일 시 3월 14일(수)-9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부산초콜릿팩토리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노논이 621-4005



전국 관객 100만명을 돌파한 호러극 '두여자'의 제작진이 만든 2018 명품 스릴러극 '서툰살인'. 연꽃선녀라는 이름의 무당집에서 어느 날 시체 한구가 신고된다. 목을 메고 자살한 사람의 이름은 윤복술, 바로 연꽃선녀 본인이다. 점점 무너지는 신력에 접신이 되지않자 찾는 사람은 뚝 끊겨버리고, 사체업자의 협박만이 있는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그의 발버둥은 바로 죽음을 위장하는 것인데... 충격실화를 모티브로 한 '서툰살인'은 새로운 스타일의 긴장감, 예측불허의 전개, 파위풀한 연출력으로 색다른 공포를 선사한다.

연극 불편한 타이밍

일 시 6월 21일(목)-10월 28일(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2:30, 5:00, 7:3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20년지기 사고뭉치 세 친구가 벌이는 소동을 통해 웃음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연극 '불편한 타이밍'. 주인공 정민은 아내 미경이 처가에 간 틈을 타 친구 오호와 강건을 집으로 초대하고, 광란의 밤을 보낸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집주인 정민은 실종 상태. 오호와 강건은 정민을 찾아보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시체와 정체 모를 여자. 그리고 난데없는 조폭까지 설쳐대는데... 어제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연극 달동네

일 시 5월 25일(금)-오픈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극단 바라 1600-1716



월남전 참전 중 행정착오로 전사자 처리된 아버지의 잘못된 전사자 통지를 받은 가족들은 부산 달동네로 이사를 오고 풍족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달동네 사람들과 희망을 잃지 않으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 중 심한 화상으로 한국에 돌아온 아버지는 이사간 가족들을 찾아 옛장사를 하며 전국을 헤매다가 가족들을 만나지만, 가족들은 화상으로 얼굴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달동네 사람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점점 잊혀지고 있는 가족과 이웃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연극 엑소시즘

일 시 6월 22일(금)-8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나다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위너스 컴퍼니 010-7546-4674



무대를 뚫고 나오는 악령들이 마주하는 숨막히는 시간, 연극 '엑소시즘'. 평생을 두려움에 갇혀 살며, 세상의 모든 종교와 미신을 믿는 진경은 딸을 위해 오늘도 혼자만의 엑소시즘에 빠져 있다. 그런 엄마를 미쳤다고 말하는 딸 연수의 방에는 수십개의 십자가와 예수, 부처, 마리아상에 부착 등이 마치 도배하듯 붙여져 있다. 연수는 도대체 엄마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궁금해 묻지만 엄마 진경은 그저 너를 위해서라고만 이야기한다. 그러던 어느날 연수의 남자 친구인 양구가 그녀의 집을 찾아오게 되고 그를 처음 본 진경을 마치 악마를 보듯 그를 쫓아내는데...

국민연극 라이어 그 후 20년

일 시 6월 1일(금)-9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영국의 극작가 레이 쿨리의 대표작으로, 1998년 초연 이후 현재까지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라이어' 시리즈 2탄. '라이어 1탄'으로부터 이어지는 사건의 실마리에 더욱 탄탄하게 다져진 이야기와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극의 재미를 더하는 '라이어 그 후 20년'은 20년 동안 두 가정에서 버젓이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온 한 남자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속도감 넘치는 전개를 통해 유쾌한 웃음을 관객들에게 전해준다.

공포 심리 미스터리 연극 흉터

일 시 6월 29일(금)-8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축제소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아이엠컴퍼니 070-4211-8879



같은 사건, 그러나 다른 상처를 지닌 두 남자의 팽팽한 심리전을 통해 순도 100% 리얼 공포를 선사하는 공포심리미스터리 연극 '흉터'. 대학시절부터 사랑과 우정을 이어온 동훈, 재용, 지은은 복잡미묘한 관계 속에서 등산을 가던 중 갑자기 지은이 돌연사하게 된다. 8년 후 두 친구는 지은이 죽은 그 산을 다시 찾게 되고 등산 중 재용은 부상을 입고 옆친데 댄친 격으로 길까지 잃게 된다. 가까스로 발견한 산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그들은 지은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끔찍했던 사건의 기억은 결국 그들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가는데...

2018 호러연극 자각몽

일 시 6월 29일(금)-9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일·공휴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극단이야기협동조합 070-4618-7230



꿈속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하루, 어느 것이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자각몽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호러연극 '자각몽'. 주인공 시연은 남자친구 오범의 폭력과 감금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를 정신 병원에 가두어버린다. 그럼에도 자신을 찾아올까 봐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는 시연, 매일 밤 시연의 꿈속으로 찾아오는 오범으로 인해 시연은 그날의 잔혹했던 하루들이 무수히 반복되며 출구없는 지옥에서 괴로워 한다. 그렇게 1년을 고통 속에 지내는 그녀는 참다못해 그를 꿈속에서 죽이기로 결심하는데...

● 연출/허석민

연극 수상한 흥신소 1탄

일 시 7월 19일(목)-9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30,
6:3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 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가진 건 영혼을 보는 능력 뿐인 자타공인 날백수 고시생 오상우, 우연히 만난 엘리트 경영학도 출신인 영혼 감동연과 만화작가가 꿈이었던 영혼 오덕희의 제안으로 죽은 이의 이승에서의 일들을 대신 해결해주는 기상천외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귀신이 보이는 남자'라는 독특한 설정을 휴머니즘 가득한 서사로 풀어낸 코미디극 '수상한 흥신소'는 제각기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영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해준다.

연극 론더풀 투나잇

일 시 7월 28일(토)-9월 9일(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후 5:00(월-목요일 공연없음) 무대공감소극장 at 젬스톤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623-0678



혼자 있기를 바라지만 결국 사람들과 함께할 때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따뜻한 감동과 재미로 풀어낸 창작극 '론더풀 투나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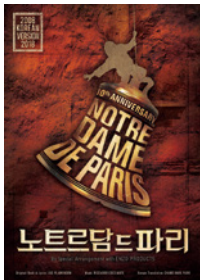
지난 2013년 초연무대를 시작으로 그동안 재미와 감동이 있는 '메이드 인 부산' 연극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론더풀 투나잇'은 동네 어귀에 있는 간판도 없는 허름하지만 정감있는 술집을 배경으로,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공간과 그 속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부산

일 시 8월 2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6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문의 (주)인터파크 950-6500



지난 1998년 프랑스 파리 초연 이후 전 세계 20개국, 4,000회 이상 공연, 1,200만 누적관객을 돌파한 전 세계 흥행 대작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한국 데뷔 10주년 기념무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노트르담 드 파리'는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 시적인 노랫말, 그리고 노트르담 성당을 상징하는 초대형 무대세트와 역동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2018 창작뮤지컬 해운대연가-구름 위를 걷는 자

일 시 8월 29일(수)-9월 1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VIP석 4만원, R석 3만원, A석(2층) 2만원 (학생 30% 할인)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라는 지명을 최초로 썼다고 알려진 신라의 문장가 고운 최치원 선생의 삶과 그 시대를 다룬 창작뮤지컬 '해운대연가-구름 위를 걷는 자'. 해운대문화회관이 해운대만의 독자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제작, 2016년 11월 초연무대를

가진 후 매년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올려온 '해운대연가-구름 위를 걷는 자'는 극단 아트레볼루션 박정우 대표가 극작과 연출을 맡는 등 출연진은 물론 무대, 의상, 소품 제작까지 부산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엘메이드 부산 뮤지컬'로 큰 호평을 받아왔다.

● 총감독/김성모 ● 작, 연출/박정우

뮤지컬 '시카고' 부산

일 시 8월 31일(금)-9월 9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문의 예술기획 성우 1599-1980



지난 18년간 대한민국 뮤지컬 정상을 지켜온 세상에서 가장 섹시하고 뜨거운 뮤지컬 '시카고'. 그동안 Tony, Drama Desk, Grammy, Olivier Awards 등 전 세계 최고 권위 시상식을 석권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시카고'는 지금까지 전 세계

36개국 490개 도시에서 3,1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관람하는 등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사랑받고 있다. 화려한 관공의 몸짓 속에 숨겨진 통렬한 사회 풍자와 웃음, 그리고 농염한 재즈 선율과 팝 파시의 숨결이 묻어나는 안무까지 잠시도 눈을 땄 수 없는 화려한 무대가 선보인다.

기타공연장

무용 | Dance

2018 영남춤축제
춤, 보고싶다

일 시 7월 14일(토)-8월 25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S석 2만원, A석 1만원(아외마당 공연 무료)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busan.gugak.go.kr



영남지역 전통예술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국립부산국악원이 마련하는 2018 영남춤축제 '춤, 보고싶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기획·초청 공연을 비롯해 야외공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 기획자 오픈 무대, 세미나, 춤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8월 8일(수) 오후 7:30 윤여숙무용단 '춤 4대로 이어지는, 원로에게 듣는 영남·동래춤 이야기'
영남, 동래지역의 대표적인 춤과 춤사위들을 분석하

여 렉처콘서트(Lecture Concert) 형식으로 마련하는 윤여숙무용단의 '원로에게 듣는 영남·동래춤 이야기'.

프로그램
동래고무, 산조춤, 덧배기춤, 문동이춤, 태극무, 동래입춤
● 예술감독/김은경 ● 기획연출/윤여숙

8월 16일(목) 오후 7:30 예무헌회 '김미숙의 예무지도무(禮舞之道舞III)'
2016년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 김미숙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한 '예무헌회(禮舞獻會)'의 무대.

프로그램
진주포구극무, 진주살풀이춤, 동래학춤, 통영입춤, 김미숙의 신비연무, 진주교방굿거리춤, 정소산류 수건춤, 소고춤
● 예술감독/김미숙 ● 스토리텔링/이화진
● 특별출연/이성훈(부산시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 보유자)

8월 18일(토) 오후 5:00 심현주의 전통춤-첫번째 그림
수묵화로 그려내는 전통춤 풍경.

프로그램
춘앵전, 부채춤(김백봉류), 살풀이춤(이매방류), 산조춤(황무봉류), 지전춤(김진홍류), 소고춤(권명화류), 동래한량춤(김진홍류)

8월 22일(수) 오후 7:30 2018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이웃 나라의 전통 춤을 만날 수 있는 아시아춤문화연구소의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11번째 무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족춤 공연단 중 인도네시아의 화려한 민족춤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한국/큰테평무, 복의 향연
인도네시아/ 빨레공안 메사띠아, 스까르 잠베링, 끄빠아르 끼빠스, 머락(자와바랏), 응가로쟁(버따위)
● 총기획/김미숙 ● 총연출/김해성
● 예술감독/김미숙(한국),
Ida Bagus Ketut Sudiassa(인도네시아)
● 출연/김미숙무용단, Widya Budaya Balinese Dance Studio

8월 25일(토) 오후 5:00 2018 영남춤축제 폐막공연
2018 영남춤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폐막공연으로, 국립부산국악원과 부산시립무용단, 울산시립무용단, 구미시립무용단의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부산시립무용단 '댄스 유토피아(Dance Utopia)-祭'(예술감독, 안무/김용철)
울산시립무용단 '수작(水作)'(예술감독, 안무/홍은주)
구미시립무용단 '망향'(예술감독, 안무/김우석)
국립부산국악원 '별거리유희'(안무/김태훈·전 국립부산국악원 안무자)

영화 | Movie

서머 스페셜 2018

일 시 7월 18일(화)-8월 19일(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매주 월요일 상영없음)
입장료 일반 6천원, 경로·청소년 4천원
문 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6080



여름에 어울리는 흥미로운 주제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명작을 상영하는 풍성한 여름 영화축제인 '서머 스페셜 2018'에서는 우리에게 아직 낯설지만 코미디 영화사에서 미국 영화에 비견가는 지분을 가진 프랑스 코미디영화를 소개하는 '프렌치 코미디', 로커와 블루스 가수 그리고 재즈 뮤지션들의 불꽃 같은 삶과 음악의 순간들을 만날 수 있는 '길 위의 노래',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와 자연을 배경으로 한 '이탈리아 여행' 등 세 가지 섹션의 다양한 영화를 소개한다.

(재)영화의전당 기획전
라이징스타 '박종환 배우전'

일 시 8월 9일(목)-15일(수)(상영시간 홈페이지 참조)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입장료 전석 5천원
문 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6080

유아인, 이제훈, 변요한, 류준열의 라이징 스타 계보를 잇고 있는 영화배우 박종환 작품전. 이번 상영회에서는 그의 대표작인 잉투기, 양치기들, 프로젝트 패기, 원라인, 밤치기, 얼굴들 등을 선보인다.

작은영화콘서트_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미저리(Misery)

일 시 8월 21일 화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www.bsart.or.kr

(재)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기획전
상탈 아커만 특별전

일 시 8월 21일(수)-9월 9일(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입장료 전석 6,000원(경로, 청소년 4천원)
문 의 (재)영화의전당 780-6000, 6080



장뤽 고다르,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에 비견되는 영화 형식의 혁신가로 평가받는 벨기에의 영화감독 상탈 아커만 특별전. 상탈 아커만은 실험적인 영상으로 정체성과 경계, 타자에 대해 탐구해 온 페미니스트 감독으로 유명하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계 출신으로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계를 넘나들며 방황하는 타자들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여성의 섹슈얼리티, 가사노동, 여성과 여성 또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 정착하지 못하는 자의 정체성 문제 등 특히 여성의 실존과 정체성에 다루는 영화를 만들어 왔다.

콘서트 | Concert

에픽하이 2018 소극장 콘서트
현재상영중 in 부산

일 시 8월 4일 토요일 오후 7:00,
5일 일요일 오후 6: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전석 11만원
문의 인터파크티켓 1544-1555

장필순 정규 8집 'Soony eight'
소길花' 발매기념 소극장 콘서트

일 시 8월 18일 토요일 오후 6:00 서면 오즈홀
입장료 전석 5만원
문의 (주)페이지터너 02-337-9966
제주도 소길리의 풍경과 하나음악의 추억을 이야기 한 음악과 글이 담긴 장필순 정규 8집 'Soony eight: 소길花' 발매 기념 콘서트.

행사 | Event

김옥균의 힐링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수요일 오전 11:00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12만원(3개월 수강료)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부산MBC FM 목요일음악감상회를 기획, 연출한 김옥균(전 MBC PD, 시인, 음악치료사) 클래식음악해설가가 진행하는 클래식 음악 영상감상회.

프로그램
드보르작 '첼로협주곡 나 단조'

기획특집 '요절한 유명작곡가'의 명작클래식음악 비제 오페라 '카르멘'
탱글우드 75th Anniversary Celebration
생상 '피아노 협주곡&오르간 협주곡'
음악영화 '스트라디바리우스'(안소니 퀸 주연)

7080 추억의 음악여행

일 시 8월 19일 일요일 오후 2:00, 오후 6:00 KBS부산홀
입장료 S석 2만원, A석 1만5천원, B석 1만원, C석 5천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문의 7080 추억의 음악여행 862-7553



가수 김범룡, 이치현과 벗님들, 유현상, 진시문, 임병수, 김세화, 김연숙, 우순실, 양혜승, 김민교 등 7080세대 인기가수들이 총 출동하는 7080 추억의 음악여행. 공연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영화 한편 가격으로 부담 없이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무대는 특히 소외된 이웃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콘서트로 마련된다.

- 출연가수(오후 2:00)/이치현과 벗님들, 진시문, 임병수, 김세화, 양혜승
- 출연가수(오후 6:00)/김범룡, 유현상, 김연숙, 우순실, 김민교

시네바움 · 부산시네마아카데미
8월 아카데미

일 시 6일(월), 7일(화), 13일(월), 14일(화), 20일(월), 21일(화), 27일(월), 28일(화)
시네바움 · 부산시네마아카데미
입장료 전석 1만원
문의 시네바움 · 부산시네마아카데미 010-2774-3455

- 6일(월) 오후 7:30 하이쿠로 만나는 일본의 미학(9) 무사도(武士道)에 나타난 俳句美學
-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문학평론가, 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7일(화) 오후 7:30 名詞(name) 중심에서 動詞(verb) 중심으로
- 강사/이부현(가톨릭대학교 부교수, 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소장)
- 13일(월) 오후 7:30 1980년대 민중미술과 비판적 리얼리즘
- 강사/최태만(국민대학교 교수, 부산비엔날레집행위원회 위원장)
- 14일(화) 오후 7:30 '맹자와 중용' 중 '중의 의미'

무지크바움 7080 포크 콘서트
추억의 낭만 음악여행

일 시 8월 25일 토요일 오후 3:0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한국 순수 포크음악의 계보를 지향하는 언더그라운드 포크가수 문준상이 추억의 낭만과 함께 서정적이면서도 감성어린 포크음악의 감동을 전해줄 무지크바움 7080 포크 콘서트 '추억의 낭만 음악여행' 이번 무대에서는 한대수, 박인희, 두아메우아, 은희, 라나에로스포, 김민기, 양희은, 조동진, 트윈폴리오,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정태춘, 박은옥, 어니언스, 김광석 등 한국 포크음악에서부터 밥 딜런, 존 바에즈, 피터 폴 앤 메리, 그리고 번안곡까지 포크음악의 명곡을 들려준다.

- 강사/윤산 김수청(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동아대학교 초빙교수)
- 20일(월) 오후 2:00 무속과 민속신앙을 찾아서(2) 영화 속 무속, '복은 나누고 한은 풀고'
- 강사/심상교(부산교육대학교 교수)
- 20일(월) 오후 7:30 세익스피어 읽기(2) 메멘토모리, 왜상화법(歪像畫法)(Anamorphosis), 햄릿 1
- 강사/김해룡(영문학 박사, 전 한일장신대 교수)
- 21일(화) 오후 7:30 중국 중화민족주의와 한국
- 강사/공봉진(국제지역학박사, 목아중국연구소 소장)



- 27일(월) 오후 7:30 정해성의 문화공간(4) 죽음과 예술
- 강사/정해성(문학박사, 문화평론가)
- 28일(화) 오후 7:30 고구려 남정(南征)과 가야의 재편(再編)
- 강사/유우창(부산대학교 외래교수)

기타공연장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지휘자의 음악세계 II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2000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좋은음악 & 좋은만남’은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에서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7일(666회) 무대위 사관선생님 Karl Bohm
14일(667회) 나는 나다 Herbert von Karajan
21일(668회) 나는 자유인이다 Leonard Bernstein
28일(669회) 이달의 책읽기 ‘음악 혐오(파스칼 기나르, 김유진 옮김, 프란츠)

제130회 알바트로스 詩낭송회
여름, 바다 주제 시낭송회

일 시 8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신세계안과 문화송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 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149

2018 부산국제여행영화제

일 시 8월 31일(금)-9월 2일(일) 영화의전당
문의 부산국제여행영화제 714-6948

‘설레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여행’과 ‘영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마련되는 2018 부산국제여행영화제.

전 세계의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된 영화와 로드무비를 통해 여행작가와 여행전문가가 관객과 함께 영화를 통해 여행을 이야기하는 영화상영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일 시 8월 14일(화) 오후 7:30, 22일(수) 오후 2:00, 24일(금) 오후 7:30, 27일(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14일(화) 오후 7:30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32강 ‘드보르자크의 생애와 음악’

스메타나와 더불어 체코 음악의 대부로 체코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생애와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다양한 음악의 식탐자라도 유명한 드보르자크는 각각 독특한 민족음악을 갖고 있었던 이웃나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 지역의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미국 뉴욕의 내셔널음악원 원장으로 재임한 3년 동안은 흑

전시 | Display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부산의 작고작가 시리즈 ‘김종식’

일 시 5월 25일(금)-8월 1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실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2018 고은사진미술관 해외교류전
일본현대사진의 원류

일 시 6월 9일(토)-8월 29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갤러리 아인 여름 기획전시 2탄
‘디자인이 살아’展

일 시 7월 3일(화)-8월 23일(목) 갤러리 아인
문의 갤러리 아인 747-2612

인과 아메리칸 인디언 음악은 물론 미국에 이민온 다양한 민족들의 음악도 열심히 수집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이번 강좌에서는 국제인으로서의 드보르자크의 삶과 그가 남긴 실내악, 교향곡, 협주곡, 가곡, 오페라 등을 연주실황을 통해 만날 수 있다.

22일(수) 오후 2:00 발레가 있는 무대
영원한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

• 강사/노영재(무용평론가)

24일(금) 오후 7:30 여행, 예술을 만나다
제7강 문화의 중심지 오스트리아 빈(Wien)

오스트리아 빈은 약 600년 넘게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도 역할을 하며 합스부르크 가문의 국제혼인정책과 유럽의 관문으로 수많은 인종들이 함께 살았던 도시였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게 했으며 왕이나 귀족의 소속 예술가가 아닌 자유로운 활동을 원했던 모차르트, 베토벤 등과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이 이 도시로 오게 만들었다. 전반적인 역사와 더불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세기말 빈의 역사와 인물들에 대해 알아본다.

• 강사/김성민(아트커뮤니케이터)

27일(월) 오후 7:30 색이 삶을 말한다
제18강 세상속의 색, 그 색 속의 나
‘인테리어 색채 1로 말한다’

• 강사/박미송(퍼스널컬러 전문가)

SUBSUB 첫 개인展 ‘میم물’

일 시 8월 2일(목)-8월 28일(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SNS를 시작으로 그림책을 내면서 카카오톡, 삼성, 사넬 디올 등 다수 브랜드들과 협업 작업을 해오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SUBSUB의 첫 개인전으로 평면, 영상, 설치 작품들을 선보인다.

을숙도 ‘부산사랑 젊은작가 프로젝트 2018’ 릴레이전

일 시 8월 24일(금)-8월 30일(목)
갤러리 을숙도 2, 3전시실
문의 을숙도문화회관 220-5822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일상과 감각의 한국디자인 문화사

조현신 지음 / 글항아리
340p /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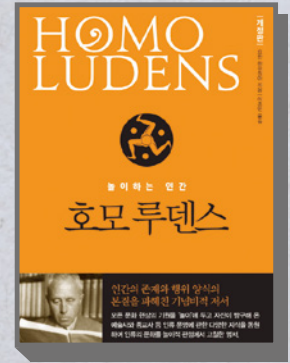
그릇, 화장품, 패션, 전화기, 자동차, 책, 초등 국어교과서, 소주, 담배, 라면, 약, 과자, 화폐, 간판, 도심 근교 카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물건이고 환경이다. 우리의 삶이다. 한국인의 삶을 만든 15가지 물건의 디자인 문화사를 살펴본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우리 일상 사물들이 근대 개화기 이후 130년 동안 빚어낸 디자인의 연대기를 담고 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고가의 제품이나 명품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 책은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니라, 투박하고 다소 촌스럽더라도 우리가 좋아했고 그래서 우리 곁에 오래 머물렀던 디자인들을 다룬다. 그렇기에 자동차나 핸드폰처럼 디자인이 중요한 물건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루는 물건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 130년간의 디자인 변천사에는 근대가 시작될 때의 어설픈, 경제발전 시기의 자신감, IMF 이전 경제 활황 시기의 여유로움, 그리고 이후 현대로 오면서 강조되는 자유분방함까지 새겨져 있다. 또한 주변의 디자인을 둘러보는 것은 일상의 미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준다.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물건의 디자인이 바로 한국인의 자화상을 말해주는 책이다.



컬렉션의 맛

김세종 지음 / 아트북스
312p / 2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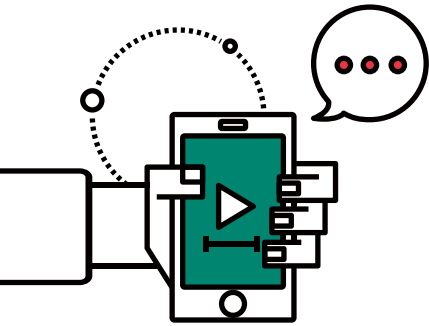
컬렉터 김세종 씨가 40여 년에 가까운 수집 인생에서 좌충우돌 겪은 경험과 철학을 세상에 내놓았다. 긴 세월동안 몸으로 부딪혀 쌓은 그 경험을 미술품을 사랑하고 수집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쓴 책이다. 청소년기부터 서울에서 홀로 지내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틈틈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으며 미술과의 인연을 맺었다. 광고기획을 하면서 점차 미술품 수집도 시작했다. IMF로 큰 시련을 겪으며, 애써 모은 미술품을 비워내는 아픔을 겪은 후 앞으로는 편안하게 예술을 즐기자는 마음으로 서울 평창동에 '평창아트' 갤러리를 열었다. 그리고 민화 수집에 빠져 17년의 세월을 보냈다. 한 분야에 오래 몰입하면 내공이 생긴다. 미술품 컬렉터에게도 저마다의 수집 철학이 있다. 술한 시행착오를 통해 버려진 수집 철학은 컬렉션에 일정한 질서를 잡아주고 생명력을 부여한다. 이 책은 창작으로서의 컬렉션을 추구하는 저자가 오랜 경험에서 우려낸 수집 철학과 그 철학을 기반으로 수확한 민화 컬렉션에 관한 생각을 담고 있다. 민화를 상징이나 관념의 관점이 아닌 회화적인 관점에서 보기를 제안하며, 세계적 예술품인 민화의 위상이 국내에서도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역설한다.



호모 루덴스

요한 하위징아 지음, 이종인 옮김 / 연암서가
448p / 1만6천원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라고 부른다는 걸 책에서 많이 배웠다. 세월이 흘러 인간은 그리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현대인들은 인류를 '호모 파베르(Homo Faber:물건을 만들어내는 인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는 호모 파베르 바로 옆에,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와 같은 수준으로, 호모 루덴스(Homo Ludens:놀이하는 인간)를 인류 지칭 용어에 올렸다. 생각하기와 만들어내기처럼 중요한 제3의 기능을 '놀이하기'로 본 것이다. 고대 사람들은 모든 인간의 행위를 '놀이'로 부르며 그것을 지혜로 여겼다. 일부 사람들은 놀이를 천박하다고 생각하지만 놀이 개념은 이 세상의 생활과 행위에서 분명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저자는 즐거움과 흥겨움을 동반하는 가장 자유롭고 해방된 활동, 삶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인 놀이가 법률, 문학, 예술, 종교, 철학을 탄생시키는 데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또 현대에 이르러서 일과 놀이가 분리되고, 단순히 놀기 위한 놀이는 퇴폐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이 내린 결론은,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가 아니라 호모 루덴스이다.



서포터즈 공연을 이야기하다

(재)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부산문화회관의 공연 소식,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음악이 주는 힘

미하일 플레트네프&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문정희

www.instagram.com/alwaysmile_7896

클래식 음악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사 없이 마음을 울릴 수 있어 가끔 찾아 들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던 ‘미하일 플레트네프&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공연은 큰 기대를 한 만큼 아주 만족스러운 공연이었다. 최단기간 최정상에 올랐다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와 오케스트라 설립자이자 천재 지휘자로 불리는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만드는 하모니는 정말 좋았고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1부에 있었던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예스터 유의 연주는 경쾌하면서도 정교한 게 소름이 돋기도 했다. 바이올린을 섬세하게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게 느껴졌고 앵콜곡이었던 ‘밀양 아리랑’을 다양하게 변주해서 연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나는 이번 공연을 2층에서 관람했는데 연주자들의

악기 연주하는 모습이 잘 보여서 좋았다. 부드러운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음악의 선율을 따라,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악기들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계속 눈길이 갔다. 또한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트라이앵글과 같은 작은 악기들이 음악을 보다 조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공연이었다. 또, 이번 공연을 보면서 음악이 많은 사람들을 몰입하게 하고 힘을 준다는 것이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2부에 예정되어 있었던 스트라빈스키의 ‘불새’가 차이콥스키의 발레 모음곡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바뀌어 조금 아쉬웠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 익숙한 차이콥스키의 발레곡이라 즐기면서 편하게 잘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접하고 싶다.

재미와 감동이있는 무대

부산시립극단 제62회 정기공연 ‘상사화’



정은지

<https://blog.naver.com/zxcvb93>

지난 7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부산시립극단 제62회 정기공연으로 창작뮤지컬 ‘상사화’ 공연이 있었다. ‘상사화’의 작가와 객원 연출가가 마침 내가 관람한 적이 있던 ‘몽키댄스’를 제작했던 기리프로젝트 소속이라 관람 전부터 무대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일반적인 연극과 달리 뮤지컬은 노래, 무용, 연극이 조합되어 사람들의 시각과 청각을 매료시키는 장르이다. ‘상사화-여의와 황새’는 가야시대를 배경으로 한 설화로,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40명 가까이 되는 출연진이 등장하고 주인공들의 어린 시절 모습과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낼 만큼 감췄다. 공연을 보며 얼마나 이 공연을 위해 많은 연습을 했을지, 그리고 무대 위에 올랐을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찼고 또 끝났을 때 얼마나 아쉬워 했을지 짐작이 갔다. 앞으로 부산의 문화는 이 친구들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다. 배우들의 연기뿐 아니라 의상과 안무, 무대장치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재미와 감동이 있는 무대였다.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셔틀버스 기증

관객 편의제공, 문화나눔 공익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기여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회장 최수기)가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9인승 셔틀버스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셔틀버스는 기존의 노후화된 셔틀버스를 대신하여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객의 안전한 수송과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운영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셔틀버스와 달리 이번 셔틀버스는 중형크기로, 지리적 여건으로 찾지 못했던 부산 내 문화사각지대를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 누비며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계획이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회원모집과 모금활동으로 후원문화 조성에 힘쓰는 한편, 후원활동을 통한 부산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1월 6일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발족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는 현재 최수기 회장을 비롯해 60여명의 지역 인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품격높은 문화공간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후원회원은 이사회원(300만원



이상)과 일반회원(100만원)으로 구분하며, 후원회원에게는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무료 주차혜택, 대극장 좌석 네이밍 등 다양한 예우가 제공된다.

◆ BNK부산은행,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금 전달

2018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사업 후원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박인건)은 지난 7월 3일 부산문화회관 접견실에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으로부터 지원금 3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에 전달받은 지원금 3천만원은 8월 15일부터 열리는 ‘2018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부산시민들이 더욱 많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원금 후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활동과 메세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온 BNK부산은행은 현재 청년 음악인재 양성 프로젝트인 ‘BNK 행복한 음악캠프’를 비롯해 클래식 공연과 금융교육을 접목한 ‘쌈지금융콘서트’, 부·울·경 지역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뮤지컬을 공연하는 ‘BNK 행복한 힐링스쿨’ 등 자체 문화예술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서 (재)부산문화회관 박인건 대표이사는 “이번 지원금 전달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와 금융을 대표하는 두 기관이 하나로 힘을 합쳐 부산의 문화예술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8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백호의 청춘 콘서트 [종료]

5월 12일(토) 14:00, 18: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세대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보이스, 이 시대 최고의 젊은 보컬리스트들이 함께 노래하고 싶어하는 가수 최백호의 특별한 무대.
(S석에 한해 1인 2매 예약가능, 각 공연당 50좌석 선착순)

이반 크르판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5월 20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2017년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이반 크르판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사무엘 윤&손지혜 듀오콘서트 [종료]

6월 1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의 주역가수 사무엘 윤과 오페라무대의 차세대 디바 손지혜의 듀오무대.

미하일 플레트네프&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종료]

6월 27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현악단인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초청 무대.

김옥련 발레단 발레컬 '운수좋은 날' [종료]

7월 17일(화) 오후 2:00, 18일(수) 오후 2:00, 8: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인 4매, 회당 40매 선착순)

현진건 원작소설 '운수좋은 날'을 발레와 연극, 노래, 현대춤 등 다양한 장르가 아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로 탄생시킨 발레컬 무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약중

8월 21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100매)

예술의전당 상주오케스트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극장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공연.
• 지휘: 정치용 • 협연/피아니스트: 손민수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 4 예약중

8월 29일(수), 10월 31일(수), 11월 28일(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100매)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시즌 4.
• 지휘: 김봉미 • 해설: 조윤범

카푸송&카메라타 잘츠부르크

10월 20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푸송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가 함께하는 무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607-6074~6)

VIP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김군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중기획 이사
 박혜빈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부산아트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이명아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이정일 정민섭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영희 숙편한내과 원장
 정의화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조성락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조총영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진경옥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하정태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한원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허 준
 현임숙

※ 2018년 7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을 만나다

**음악이 주는
소통과 공감**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김기호 이사



(주)EDS보안물류 대표이사로 있는 김기호 이사는 최근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이사를 맡고 나서 부터 공연장 나들이가 잦아졌다. 평소에도 백양로교회 시온찬양대 대장이자 부부찬양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찬양을 통한 문화활동을 꾸준히 해오기는 했으나 후원회와 인연을 맺은 후에는 관객으로 객석에 앉아있는 시간도 많아졌다. 고교시절, 가수로서의 꿈을 잠시 꾸기도 했던 그는 당시 가요계를 이끌었던 오아시스레코드사의 신인 가수 선발 오디션에서 무려 1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뽑힌 전력이 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집안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가수의 길을 접어야 했지만 타고난 노래실력만큼은 인정받은 셈이다. 바쁜 삶을 살아오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아들의 학교, 교회에서 열리는 가족노래경연대회에 출전하며 노래로 화목을 다져온 김기호 이사는 그가 대표로 있는 (주)EDS보안물류에서도 매년 10월의 마지막 날이면 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를 통해 음악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나누고 있다.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는 평소 문화활동에 관심이 많던 (주)EDS보안물류 정진열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후원회 역시 정진열 회장의 권유로 가입했다. 그러나 후원회에 발을 담은 만큼 김기호 이사는 지금껏 모든 일에 그래왔듯 후원회 활동 역시 평소 좌우명처럼 '쪽팔리지 않게'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1983년 범일통상으로 첫 발을 내딛은 (주)EDS보안물류는 첨단 디지털기술과 정보통신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앞선 기술의 도입으로 최첨단 통합물류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첨단 물류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주)EDS보안물류는 물류보안부문에 중점을 두면서 2005년 BNK부산은행에 이어 2016년부터는 BNK경남은행과 공동으로 통합보안물류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후원회 활동을 통한
작은 실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김암우 이사



세무법인 중추 대표로 있는 김암우 이사는 최근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클래식 전용 채널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클래식음악을 즐겨 듣는다. 평소 알고지내던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최수기 회장의 권유로 후원회에 가입하면서부터 생겨난 새로운 취미라는 김암우 이사는 아직은 클래식음악이 익숙하지 않지만 천천히 클래식음악의 매력을 알아가고 있다. 그래도 집이 국립부산국악원 인근이라 국악원을 가끔씩 찾는다 그는 특히 가족 송년모임을 대신해 국악공연 관람을 하는 등 평소에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다. 김암우 이사는 평소 교회의 십일조처럼 수입의 10%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고 있으며 현재 세무사봉사회 회장을 맡아 봉사 바이러스를 전파하는데도 열심이다. 특히 청소년 선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그들의 관심분야인 체육, 예술활동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커졌다. 얼마 전에는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필과정을

수료하기도 한 그는 요즘에는 인문학에 관심이 생기면서 교전을 즐겨 읽는다. 최근 각 구별로 문화회관이 생기면서 공연관람의 기회는 크게 늘어났으나 정작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이 적어 아쉽다며 자신부터라도 가까운 주변사람들과 함께 공연장을 자주 찾은 계획이라는 김암우 이사. 후원회 활동을 통한 자신의 작은 실천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후원회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한다. 김암우 세무사는 경성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부산세무사고시회 회장, 동래세무서 성실납세자문위원,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을 역임했다. 그가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 중추는 세무업무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기본적인 세무업무는 물론 세무컨설팅, 세무조사자문 등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종합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티네
조윤범과 함께하는 콘서트 시즌4

오페라 이야기 I

해설 조윤범

오전 11:00 2018. 8. 29 (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김봉미



소프라노 김방술



테너 김충희



바리톤 한명원

Program 프로그램

G. Verdi
베르디
(1813 - 1901)

라 트라비아타
Opera <La Traviata>

서곡
Overture
축배의 노래
Brindisi
아 그대인가
Estrano!-Ah, fors'Èe lui
프로벤차 고향의 하늘과 땅을 너는 기억하니?
Di Provenza il mar, il suol
사랑하는 이여, 파리를 떠나서
Parigi, o cara

리골레토
Opera <Rigoletto>

이 여자나, 저 여자나
Questa o quella
우리는 똑같다
Pari siamo
그리운 그이름
Caro nome
저주받을 가신이라는 종족
Cortigiani, vil razza dannata
여자의 마음
La donna e mobile

[선착순 이벤트]
커피와 빵을
무료로 드립니다.

즐거운 콘서트

만남

“잊혀진 계절”의 주인공
가수 이용”

2018. 9. 15(토)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Nouvelle Ensemble

Ensemble For You



베이스 나윤규



소프라노 박문주



스프라노 이덕인



테너 강성구



테너 조윤환



바이올린 박수경



비올라 박영주



피아노 권예린

문의 및 예매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051-607-6000

인터파크 www.ticketpark.com 1544-1555

티켓 R석 2만원 · S석 1만원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문화회관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산문화회관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양상불포유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꼬등어 콜드컵 여름 한정판 출시

Cold cup for cool happiness



NAVER

꼬등어

검색



FACEBOOK



INSTAGRAM

www.designiv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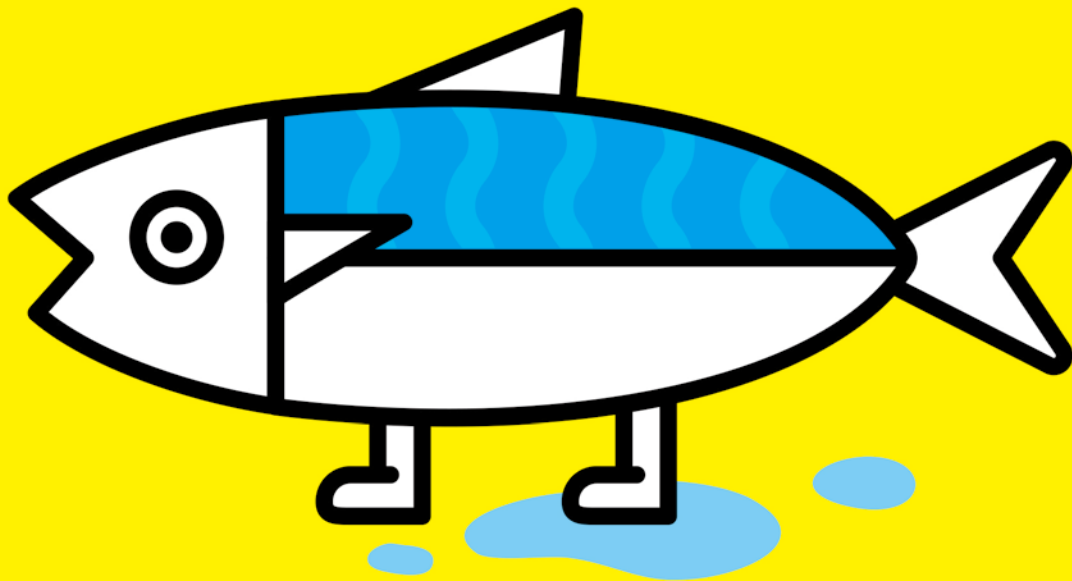


발 달 릭

꼬드어

GGO
DEUNG O

호기심으로 뚝뚝 뭉친 두다리로
여행을 즐기는 부산 대표 캐릭터



www.designivy.com

꼬드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GDD DESIGN



it Award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Korean Symphony Orchestra

지휘 | 정치용
협연 | 손민수 (피아노)

스메타나 Bedřich Smetana
교향시 <나의 조국> 中 제2곡 몰다우
No.2 Vltava from <Má Vlast>

그리그 Edvard Grieg
피아노 협주곡 A단조, Op.16
Piano Concerto in A minor, Op.16

브람스 Johannes Brahms
교향곡 제1번 C단조, Op.68
Symphony No.1 in C minor, Op.68

2018. 8. 21. TUE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8 **BNK** 부산은행 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2018. 8.15. WED - 30. THU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2018 BSCC Chamber Festival

- | | | |
|--------------------|-------------------|---------------------|
| 15 WED 아베끄 스트링 콰르텟 | 23 THU 센토챔버소사이어티 | 27 MON 부산신포니에타 |
| 16 THU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 24 FRI 코리아비르투오지 | 28 TUE 프로이데 스트링 콰르텟 |
| 17 FRI 올라 비올라 | 25 SAT 예일양상블플레이어스 | 30 THU 무지카비바 |
| 18 SAT 서울비르투오지 | 26 SUN 양상블 코스모폴리탄 | |